

www.hanjin.com.au HANJIN REMOVAL P/L **한진운송**

한국 / 호주 전지역 택배
세계 각국 택배

● 일반이사 ● 해외이사 ● 택배이사

개업 21주년 기념 특별할인

7개 라인 최다차량 보유 8대

- 정식 이사보험 가입된 회사
- 전통있는 최우수회사
- 믿을 수 있는 운송회사
- 고객 만족도 100%

02 9648 2424

0431 24 24 24 23-25 Byrne St,
070 7899 4444 Auburn NSW 2144
removal@hanjin.com.au

한국신문

THE KOREAN HERALD

Australia NO.1 Korean Community Newspaper

#시드니_일일관광
#공항픽업
#24시간_대기

시드니 일일 관광투어! 시드니 공항픽업!

040 344 1577

TALK **1577call**

No. 1587(호) 2024년 5월 17일

www.koreanherald.com.au / E-mail: herald@koreanherald.com.au

제이원 보석
J.Won Jewellery

다이아몬드, 진주 도매업체
결혼예물, 커플링, 돌잔치 등

*금 매입합니다.

스트라스필드 플라자 1층 8호 **T. 9763 1355**
Mon-Fri : 10am-6pm / Sat : 10am-3pm
(플라자 안 우체국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세요)

BUDGET 2024

WHAT'S IN THE BUDGET?

연방정부의 새 회계연도(2024-25년) 예산계획은 내년 연방선거를 겨냥한 듯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생활비 절감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주요 지출이 배정됐다. 사진: ABC 방송 뉴스화면 캡처

ederal budget 2024- 에너지 비용 및 임대료 지원 등 가계 부담 완화 주력

'생활비 절감' 목표... 저렴한 의약품 등 내년 선거 앞두고 '입지 강화' A3면

K 민사 형사
기업 부동산
고용법 이혼

KIM & ASSOCIATES

김성호 대표 변호사
직통 무료 상담
(02) 9283 5550
KNA1805

오상원 치과
Dr. Sam Oh & Associates DENTAL CLINIC

• No Gap Fee 진료
• CDBS 와 정부바우처 진료
(어린이/틴에이지 치과진료예택)

클리닉 병원 이스트우드 병원
P 02 9718 3450 / M 0411 552 987
1/8 London St Campsie NSW 2194
(세종빌딩 맞은편)

P 02 9804 1054 / M 0466 909 560
1/35 Railway Parade Eastwood NSW 2122
(이스트우드역 맞은편, 계단 사용)

온라인 예약 | www.dentalforyou.com.au

miraе 미래종합금융/보험
Insurance Services

우량 보험사간의 비교견적을 통해 가장 저렴하고
적합한 비즈니스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 신규사업 보험 전문 상담 ■ Public Liability
■ 상업용 건물 · 차량 · 장비 보험
■ Workers Compensation
■ Professional Indemnity
■ 생명보험 · 암보험
■ 현재 가입된 보험 무료 Review

후주 전 지역
보험 진행 가능

www.miraefinance.com.au
스트라스필드 플라자 6층 603호 **1300 882 595**

Hti Home Loan Finance

당신의 행복 파트너

하이홈론 파이낸스

장현철 **0430 421 115**

시드니 최고의 요지 '로즈' 신규분양 판매 임박

로즈 Rhodes 최상의 건설품질! 마지막 프라임 로케이션!
평생 워터뷰 & 시티뷰, 독보적인 매물을 선점하실 수 있는 기회!!

1,2,3 베드
평생 워터뷰
문의요망

빌버지아 건설사 | 인스펙션
틈세일즈 에이전트 | 상담문의

윤호인 0415 007 109

카슬브룩 한인 추모공원

영구보존 및 관리 | 가족묘 | 개인묘
다양한 화장묘 및 매장묘 판매

무이자 할부판매 | 전문 한국어 상담사 | NO 관리비

홍지윤 Sue Hong **0450 396 337**

AUS SOLAR ENERGY GROUP
ABN: 78 138 964 100

5월 특가
할인중!

회계년도 마감 D-6 weeks!

호주 유일!

15년 경력 CEC 호주정부 승인
태양광 솔라 설치 전문업체!

Aus solar Energy group 은 고객님과 약속합니다

- 1 패널 25년 & 인버터 10년 확실한 워런티 제공
- 2 호주 유일 15년 경력에 CEC정부허가 보유 업체
- 3 Aus solar 소속 설치팀 & 전기공 사용 (하청업체 사용 X)
- 4 Roof 지붕 워런티 보증 서비스 완벽제공

12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

Aus solar 시공사진

Aus solar 창고

CLEAN ENERGY COUNCIL
APPROVED
SOLAR
RETAILER

0426 714 188

Oliver Kim (한국어 문의)
Sales & Marketing Manager
Oliver.kim@aussolarenergygroup.com.au

가정용 솔라 시스템

6.6KW 태양광 시스템	13.3KW 태양광 시스템
단돈 \$4,090 inc GST	단돈 \$7,390 inc GST
or \$356.16 / 12개월 무이자 할부	or \$631.16 / 12개월 무이자 할부

타업체가 CEC 정부승인 & 13년 이상 경력 업체일 시,
솔라 설치비용 타업체와 가격비팅 가능합니다!

*7.8KW or 10KW 솔라 설치도 가능합니다.

상업용 솔라 시스템

20KW 이상 솔라시스템 PPA 솔라 계약 가능
" 0 upfront payment "

교민여러분, 이제 전기료 걱정 끝! 전화 상담후 계약시 깜짝선물을 제공!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Little's 법무법인 리틀즈

교통사고! 일하다가! 다쳤어요!

NO WIN
NO FEE

무료상담

- #교통사고
- #산업재해
- #연금보험
- #공공장소사고
- #개인상해

사고로 인한 개인 상해 보상! 배상은 치료비 뿐만이 아닙니다!



이러진 변호사
0408 249 334



안가희 변호사
0408 632 333

재활 및 의료비용 | 주급 손실 | 심각한 상해시 일시불 배상금

Level 5/32 Martin Pl, Sydney NSW 2000

Federal budget 2024- 에너지 비용 및 임대료 지원 등 가계 부담 완화

'생활비 절감' 목표... 저렴한 의약품 등 내년 선거 앞두고 '입지' 강화



연방정부의 새 회계연도(2024-25년) 예산계획은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생활비 절감 목표를 위해 주요 지출이 배정되었다. 이는 내년 연방선거를 앞두고 '입지' 강화로 풀이된다. 사진: ABC 방송 뉴스화면 캡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한 300달러의 에너지 사용료 공제, 연방 차원의 주택 임대료 지원 10% 인상, PBS 의약품 가격 상한선 등 생활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둔 연방 예산안이 발표됐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정부

의 2024-25년도 예산계획은 내년 5월 연방선거를 앞두고 '입지'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새 회계연도 예산에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는 정부 제안 조치가 있으며 이를 통해 내년 연방선거 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나오기를 기

대하고 있다.

높은 원자재 가격과 낮은 실업률에 힘입어 경제를 지탱해 온 연방 재무부 장관의 세 번째 예산계획은 호주 최초로 두 번째 '연속 흑자'라는 보기 힘든 기회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새 예산안은 내년도 실업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질임금은 2026-27년까지 1%포인트 증가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예고하고 있다.

찰머스 장관은 새 회계연도 예산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예산안)는 호주인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압력에 대해 현실적이며 미래에 대해 낙관적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 단기 생활비 지원

지난해 12월 중순의 예산 업데이트와 비교하면 정부는 미발표 조치에 11억 달러를 포함해 2024-25년도 117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향후 4년 동안 예산에 추가로 325억 달러의 신규 지출과 80억 달러의 절감이 포함된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7월부터 모든 납세자는 정부가 이미 발표한, 개정된 3단계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각 가계의 경우 300달러, 약 100만 개의 스몰 비즈니스에게는 325달러가 될 에너지 사용요금 경감은 청구서에 바로 적용된다. 즉 가계나 사업

주에게 직접 현금이 제공되지 않지만 에너지 사용료를 할인받는 것이다.

청구서 구제 금액은 지난해 예산과 유사한 조치이지만 새 회계연도에는 '자격을 갖춘 500만 가구(2023-24년)가 아닌, 모든 가계에 적용된다. 아울러 연방 임대료 지원을 받는 약 100만 가구는 지불금에서 추가로 10%를 더 받게 된다.

재무부는 이 두 가지 조치를 합하면 2024-25년 인플레이션을 0.5%포인트 하락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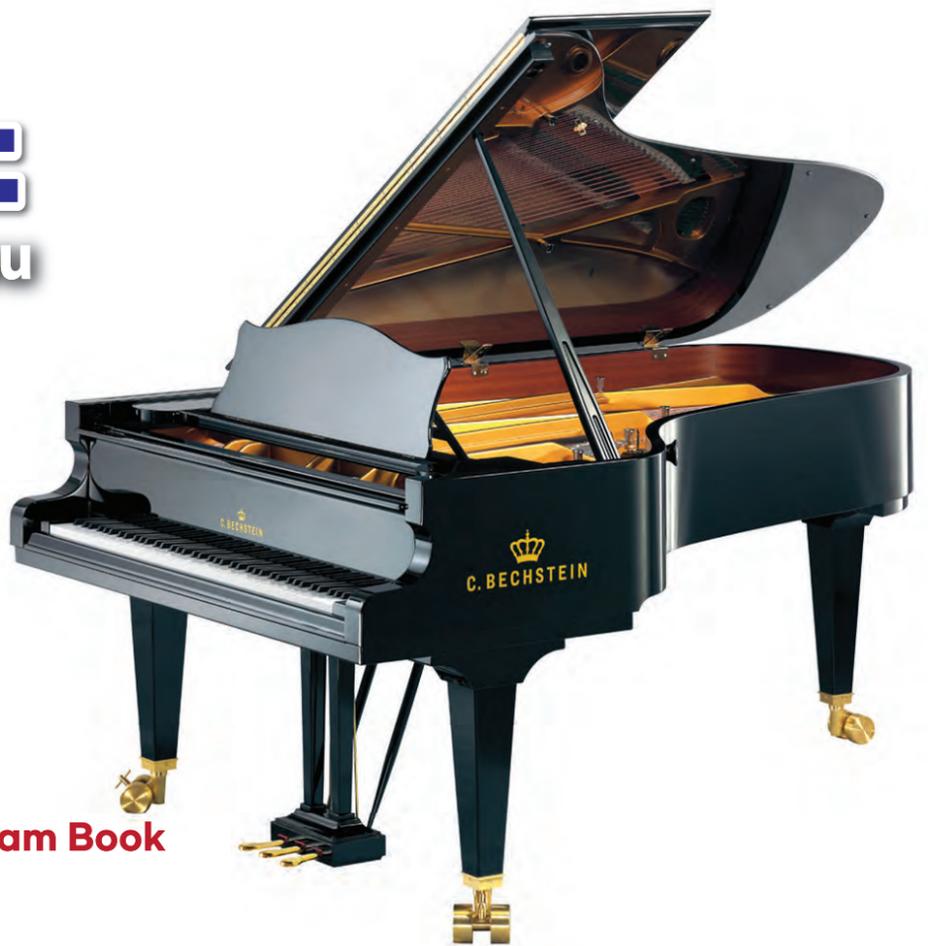
▶ 30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피아노의 명가(名家)

가스펠피아노
 www.gospelpianos.com.au

C. BECHSTEIN 벅스타인	Wm. Knabe & Co. 크나베
W. HOFFMANN W.호프만	KOHLER & CAMPBELL 컬러앤캠벨
SEILER Flügel und Pianos 자일러	KETRON BEST NATURAL SOUNDS 케트론(이태리)
Roland 로렌드	CASIO 카시오
YAMAHA 야마하	KAWAI 카와이



- Pianos
- Keyboards
- Digital Piano
- Ukulele
- Guitar
- Flute
- AMEB Grade Exam Book
- Lesson Book 교재
- Organ

가스펠 피아노사는 독일, 한국, 일본, 이태리,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피아노, 디지털 피아노 및 키보드 등을 직수입하여 호주 전 지역에 총판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최대 새 피아노 & 중고 피아노 총판매장

CLYDE | 35-37 Parramatta Rd
PH 9724 2022

RYDE | 231-235 Blaxland Rd (Cnr Lane Cove Rd)
PH 9809 5000 일요일 오픈

Federal budget 2024- Winners and Losers

노인요양-재생에너지-보건 부문 등 '지원 강화', 사업자 세금 혜택 '연장'



내년도 예산계획에서 정부는 생활비 부담 완화에 집중해 자금을 할당, 인플레이션 수치를 낮추고자 하지만 정부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고 다른 부문 지출 확대로 향후 예산 운용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 Nine Network 뉴스화면 캡처

새 회계연도 예산에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겠다는 정부 제안 조치가 있으며 이를 통해 내년 선거 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여기에는 현재 호주 가계들이 겪고 있는 생활비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하지만 지난해, 예상치 못했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정부 세수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듯하고 다른 부분 지출이 늘어나 정부 예산 운용은 이전에 비해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3-24년 예산계획의 승자와 패자를 알아본다.

■ Winners

▲ Aged care= 정부는 2만4,100개의 홈케어 패키지(home care package)를 더 출시하기 위해 추가로 5억 달러를 지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장기 입원 상태의 노인 환자가 더 일찍 퇴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주 정부에 6억1,0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에서 제안한 것이다. 이외에도 병원 입원 후 노인 환자들에게 최대 12주의 단기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전환 치료 프로그램(Transition Care Programme)을 확장 및 재설계하는데 1억9,0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내각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 다.

▲ Electricity bills= 호주의 모든 가구는 전기 사용료에 대해 300

달러를,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은 325달러의 리베이트를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각 주 및 테러토리와의 협상에서 합의된 에너지 경감의 연장이다. 이로써 7월부터 모든 가구는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300달러의 크레딧이 적용된다. 즉 사용료에서 300달러를 할인받는 것이다. 또한 약 100만 개의 중소기업이 다음 회계연도, 전기료 청구서에서 325달러를 분기별로 공제받는다. 재무부는 이로 인해 새 회계연도에 헤드라인 인플레이션(headline inflation,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을 약 0.5%포인트 정도 직접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출 증가가 더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Green manufacturing= 탄소배출 제로(net-zero) 전환이 필수적인 주요 광물 및 제품은 이번 예산안에서 상당한 자금을 지원받는다. 정부가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하게 되면 2027년부터 주요 광물, 수소에 대한 생산세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인센티브는 생산된 수소 1kg당 2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광물의 가치는 관련 처리 및 정제 비용의 10%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 두 예산 모두에 약 140억 달러의 비용이 투입될 전망이다. 또한 청정에너지 제조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14억 달러가 제공되며, 이는 주로 태양광 제조 역량을 개발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의 'Future Made in Australia' 계획의 일부로, 자금 지원을 위한 우선 산업을 식별하기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따라 진행된다.

▶ 28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고객님의, 고객님에 의한, 고객님을 위한

용자 상담인이 되겠습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 고준서 드림 -

주택용자
- 첫 주택구입
- 투자
- 재용자

상업용 건물 용자

자동차, 장비 용자

"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의 Cash

Rate 이 2023년 11월 7일 0.25% 올려서 **호주 중앙은행**

Cash Rate 은 4.35% 가 되었습니다.

RBA의 이자율 변동을 알고 싶으신 고객님들께서는

info@miraclefinance.com.au 이나

전화번호 **0408 815 816** 으로

정확한 영문 Spelling과 이메일 주소를 보내 주시면

매월 RBA 이자 변동 안내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계신 주택의 용자 이자율을 확인하셔서 Update된 낮은 이자율로 재용자 하시어 현금 보너스도 받고 낮은 이자율로 매월 상환되는 이자금액을 절약 하시기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Australian Credit Licence Number:388928
ACN:135 113 594

MFAA Full Member 55117



Mob. 0408 815 816 / Ph. 02 8068 4168

1085 Victoria Rd, West Ryde NSW 2114

5월 쇼핑의 끝!

특가대표 후레쉬아시아나



온가족
건강 먹거리
HEALTHY FOOD



새로운 주소

Shepherds Bay Village Plaza
11a Bay Dr. Meadowbank NSW

메도우뱅크 역 T



후레쉬 아시아나는 Level B2 IGA 옆에 있습니다.

P3주차장 들어오는 입구는
17 Angas Street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QR코드
스캔해서
이번주
특가 상품들을
만나보세요!

0420 359 300

(02) 9648 4300

LGA 별 '웰빙 지수', 전국 최고 순위는 시드니 'Northern Beaches'

SGS Economics and Planning, 소득-주택-건강-환경-일과 삶의 균형 등 분석
최상위권에 다수 시드니 지방정부구역 포함, 2위 ACT-최하위는 West Daly(NT)



공공정책 싱크탱크 'SGS Economics and Planning'의 연례 웰빙 지수 분석 결과 시드니 소재 지방정부 구역(LGA)들이 상위 10위에 다수 포함됐다. 올해 분석 결과 웰빙 지수 최상위는 시드니, 노던비치(Northern Beaches)였다. 사진은 쿠키 해변(Coogee Beach)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 사진: Coogee Sands

건강과 소득, 고용, 주택, 환경 및 일과 삶의 균형 등 측면에서 분석한 최고의 '웰빙' (wellbeing) 지역은 어디일까.

이달 둘째 주 공개된 연례 웰빙 인덱스(wellbeing Index)에 따르면 전국 최고 지방정부 구역(Local Government Area)은 시드니 노던비치(Northern Beaches)였다. 이번 분석에서 시드니 각 LGA는 상위 10위 순위에 가장 많이 포함됐으며 퀸즐랜드(Queensland) 주의

LGA 가운데 이 순위에 오른 곳은 단 한 곳이었다.

올해 지수에서 노던비치에 이어 두 번째 순위에 오른 곳은 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였다. 연방 수도(Canberra)가 있는 ACT는 낮은 성별 임금격차 및 기후변화 위험, 부의 분배 측면에서의 평등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두 번째 순위를 차지했다.

연례 웰빙 인덱스는 공공정책 싱크탱크 'SGS Economics and Planning' (이하 'SGS')이 분석하는 것으로, SGS는 전국 518개 지방정부 구역에 대한 7가지 지표를 평가했다. SGS가 웰빙 지수를 위해 평가한 항목은 △경제, △소득과 부, △고용, 지식 및 기술, △주택, △건강, △평등, 커뮤니티 및 일과 삶의 균형, 그리고 △환경 부문이다.

분석 결과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유일한 QLD의 LGA는 브리즈번(Brisbane)으로 10번째 순위였다. 이 도시는 '규모가 크고 생산적이

며 다양한 경제',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 제한된 기후변화 위험 '에서 많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7개 항목의 낮은 평가로 하위 순위를 기록한 지역은 QLD 북부 야라바(Yarrabah)와 팜 아일랜드(Palm Island), 노던 테러토리(Northern Territory)의 웨스트 달리(West Daly)였다.

SGS의 줄리안 사프라니에크(Julian Szafraniec) 대표는 "이번 결과를 통해 지역사회 개선 전략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성별 임금격차

남녀간 임금이 주(a week) 400달러 이상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성별 임금격차는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 지방 지역인 카라타(Karratha), 애쉬버턴(Ashburton)과 같은 LGA에서 나타났다. 이 부문에서는 WA 수도인 퍼스(Perth)와 QLD 일부 LGA 또한 부진한

점수를 얻었다.

사프라니에크 대표는 "남성이 지배하는 산업에서 여성의 참여가 낮은 것이 데이터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 데이터는 특히 광산업 중심 커뮤니티와 관련이 있지만 'FIFO' (fly-in, fly-out. 호주나 캐나다 등 대규모 광산 지역에서 흔히 있는 고용 방식으로, 작업장이 있는 곳에 직원과 그 가족을 재배치하는 대신 평일에는 직원이 작업장에서 거주하고 주말이나 휴가 때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방식을 뜻한다) 근로자가 있는 퍼스 인근 지역과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조적으로 남녀간 임금 평등이 가장 높은 지역은 빅토리아의 야라(Yarra, Victoria), 호바트(Hobart, Tasmania), 남부호주 스트리키 베이(Streaky Bay, South Australia)로 나타났다.

▶ 8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정동철 변호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인력난이 극심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단기직종 482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영주권 문호를 개방했다. 나아가 영주권 신청을 위한 취업비자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바야흐로 호주 이민의 르네상스가 도래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인구증가를 우려하는 여론에 현 노동당 정부가 굴복했다. 당장 내년부터 학생비자 심사를 강화해 인구 유입을 대폭 막을 태세다. 거기다 내년 말부터 현행 482비자 대신 새로운 비자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비자 신청인이 스폰서 회사를 바꿀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심사 기간을 엄청 단축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문제는 역시 취업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직종 명단이다. 현행 단기와 중장기 분류는 폐지되고 호주직업기술국(Jobs & Skills Australia)이 관리하는 선호직종 위주로 명단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482 취업비자 직종들이 그 명단에 포함된다는 보장이 없다. 다시 말해, 내년 말에 새로운 취업비자가 시행되면서 아예 본인의 직종이 사라지는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법은 어렵더라도 예측 가능하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 가급적 현행법 아래에서 어떤 직종으로든 482 취업비자만 받으면 향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쩌면 앞으로 남은 6~9개월이 수월하게 취업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법률 및 컨설팅 서비스

- 회사/비즈니스/개인 관련 소송 등 제반 분쟁 해결
- 비즈니스 매매, 주류라이선스, 리스 등
- 주택, 상가 매매 및 부동산 개발
- 이혼,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분쟁
- 유언장 작성, 유산 집행 신청, 법적 대리인(POA) 지정
- 투자, 사업, 창업, 학업, 취업 등 여러 문제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

이민법 서비스

- 사업 및 투자비자, 이민/취업 고용 비자, 이민
- 점수제/주정부/지방고용주 기술비자/영주권
- 가족이민(결혼/부모/자녀 초청)
- 종교인 비자/Labour Agreement
- 재심/장관탄원/연방법원 제소
- 코로나19 관련 호주 입국 제한 면제 신청

노터리 퍼블릭/서류작성 서비스

- 노터리 퍼블릭 공증 및 아포스티유
- 정부, 학교,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공식 편지, 이메일 작성 대행
- 각종 신청서류 (연금, 수당, 보험금 등) 작성 대행

0412 779 281



카카오톡 아이디 : doota21

이메일 echolawyers@outlook.com

주소 Suite 16, Level 2, 10 East Pde Eastwood NSW 2122

ECHO
LAWYERS



고향에 따뜻한 온돌방이 그리우시죠 ?

호주 온돌 보일러 전문가

KOREA BOILER에게 맡겨주세요!

신축공사, 레노베이션, 그레이니 플랫 건축에도 따뜻한 온돌방 설치는 기본입니다. KOREA BOILER의 모든 보일러는 24시간 365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USPA 명품 온수 매트 판매!

포근하고 따뜻한 잠자리를 디자인 하다!

건강을 위한 최고의 재테크, 휴스파 온수매트

공통구매 환영

2024년 최신행 명품 온수매트 판매중!



퀵, 싱글매트 자가드 침대원반



디지털 온수 보일러



거실용 모노룸 온수매트 세로 1830 mm 가로 2300 mm 특대 사이즈

휴스파 호주총판에서 최고급 품질의 온수매트를 최저가로 구입하세요!!



- 전자파 NO
- 난방비 절감
- 소음 NO
- 안전성 OK
- A/S OK
- 착한가격 OK
- 스마트 절전난방 인버터 기능
- 초저소음 특허기술 BLDC 펌프
- 내구성 UP 세라믹 샤프트
- 생활방수 진드기방지 항균매트

온수판넬형 (부분 판넬형)

사용 중이신 온수 보일러에서 소리가 나거나 녹물이 나오나요? 바닥이 균일하게 따뜻하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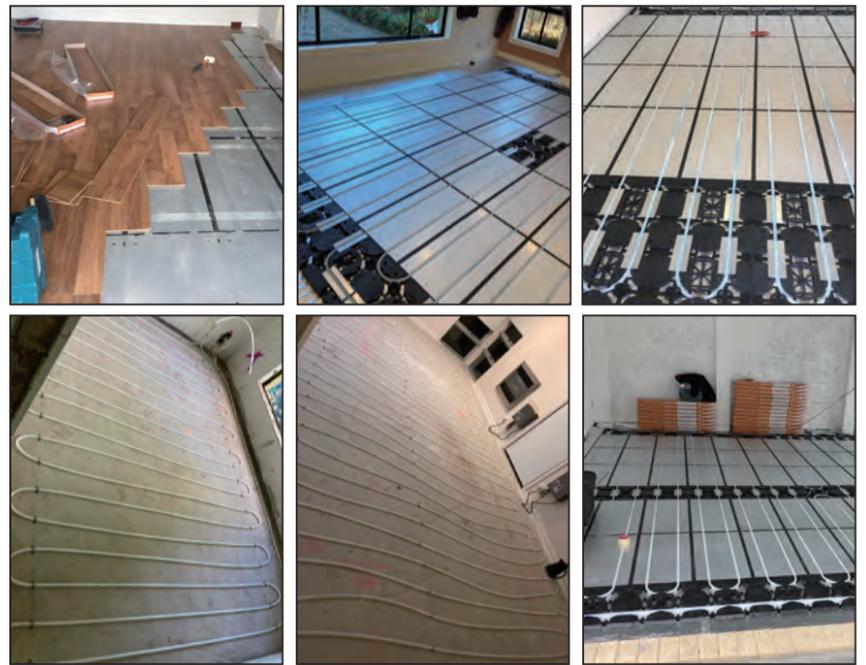
녹물이 나오는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시게 되면 동파이프 판넬까지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타사 전기온수 보일러 교체 및 신규 설치



온수보일러 화장실 바닥, 샤워장 바닥 온수설치

마루바닥, 타일바닥, 카펫바닥, 시멘트 바닥등 어느 곳에서나 설치 가능



방송인 이상벽이 선전하는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 골프를 치고 뒷다리가 당기시는 분
- 계단을 내려갈 때 다리가 당기시는 분
- 과체중으로 다이어트를 고민하시는 분
- 등산할 때 내리막길에서 다리가 힘드신 분
-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
- 손발이 자주 저리고 차가운 분
- 괘편이 어려우신 분
- 오래서 서 일하시는 분

선착순 20명, 마지막 20대 한정!!



정확한 사용법은 "누운상태에서 사용해야" 뚜렷한 운동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BEST CHOICE



태일 전기온돌 하루만에 시공하는 난방공사

보일러가 필요없으며, 방바닥을 뜯지않고, 하루만에 시공하는 난방공사!

스위치 작동 후 5분이면 난방이 가능합니다.

1억원 보험 가입

간편한 시공! 마루, 타일, 카펫등 어느 곳이나 단 30분만에 시공 가능합니다. 안전 검증! EMI, EMS 승인을 거친 전자파 시험필 제품입니다. 간편하고 실용적! 이동이 간편한 병풍식 구조 및 초절전형 시스템 철저한 AS소유! 걱정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행 조절기 UP-2S



MIN HYUK PTY LTD

주문 및 시공 바닥 레노베이션 전문 온돌 마루시공
태일전기/정왕사/HUSPA보일러 호주총판 웰빙온돌사업부

121 Darvall Rd, West Ryde / E. ondol_bang_@hotmail.com T.02 9787 2124 M.0410 408 814



멜번 도심 동쪽의 야라(City of Yarra. 사진)는 성별 임금격차가 적은 도시로, 이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곳 중 하나였다. 사진 : City of Melbourne

▶22면에서 이어받음

■ 주택

주택구입 경제성(housing affordability), 다시 말해 적절한 주택가격으로 구입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는 NSW 주 남서부(south-western NSW)의 록하트(Lockhart), 오라나 지역(Orana region)의 보건(Bogan), 서부호주의 에스퍼런스(Esperance, WA) 등이었다. 대부분의 주 및 테러토리

에서 주택가격 및 임대료는 지방 지역에 비해 대도시에서 훨씬 비쌌다. 은퇴자들이 노후를 보내고자 가장 많이 이주하는 지역 중 하나인 브리즈번은 518개 LGA 중 387위, 골드코스트(Gold Coast) 455위, 누사(Noosa) 459위였다. 그만큼 이들 인기 해안 도시의 주택가격 및 임대료가 크게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프라니에크 대표는 “QLD의 경우 경제의 분

산된 특징으로 인해 브리즈번을 비롯해 일부 도시 외에는 주택가격 및 임대료가 매우 낮은 곳이 많은데, 이런 양상은 다른 주와 상당히 다르다” 고 설명했다.

■ 건강 및 환경

이번 웰빙 지수 평가 항목 중 건강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곳은 상대적으로 기대수명이 낮은 NSW와 WA에 많았다. 브리즈번은 기대수명이 86세로, 전체 LGA 가운데 17위를 차지했다. 이 도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거주자의 85%가 한 가지 이하의 질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토리아와 타스마니아, WA 및 SA 주는 기후변화 위험 및 자연보호 구역(protected areas) 수로 측정된 환경 지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QLD의 경우 ‘환경’ 부문에서 상위 4위 안에 들

지 못했지만 QLD 북부 포트 더글라스 (Port Douglas)는 이 지역의 정부 보호 지대(government-protected lands)로 인해 이 부문 1위를 기록했다. 사프라니에크 대표는 이번 분석 결과가 호주 전역 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 우선순위를 정부가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임금의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고, 사업이 호황을 누렸다가 기후 문제로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고 언급한 그는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측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웰빙 지수 상위 20개 LGA

- (순위-LGA : Index 점수)
- 1 Northern Beaches : 7.35
- 2 ACT : 7.21

- 3 North Sydney : 7.05
 - 4 Ku-ring-gai : 7.00
 - 5 Hornsby : 6.90
 - 6 Lane Cove : 6.88
 - 7 Mosman : 6.86
 - 8 Sutherland : 6.84
 - 9 Sydney : 6.79
 - 10 Brisbane : 6.74
 - 11 Willoughby : 6.64
 - 12 Cambridge : 6.61
 - 13 Ryde : 6.59
 - 14 The Hills Shire : 6.59
 - 15 Melbourne : 6.50
 - 16 Hobart : 6.47
 - 17 Woollahra : 6.43
 - 18 Waverley : 6.39
 - 19 Nillumbik : 6.39
 - 20 Perth : 6.37
- Source: SGS Economics and Planning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Sydney Institute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24년 신입생 모집



- ◆ 치료마사지(Diploma HLT52015)
- ◆ 4년제 학사 과정 (Bachelor Degree) : 침구 및 중의학
- ◆ 38년의 전통
- ◆ 호주 문교성 (고등 교육청)의 공식 인가를 받은 최고 수준의 교육과 코스

오리엔테이션 : 2024년 5월 18일 오전 11시~오후 2시까지 개강일 : 2024년 6월 10일

Level 5, 25 Dixon Street, Haymarket NSW 2000

E : administration@sitcm.edu.au T : (02) 9212 1968 W : www.sitcm.edu.au



제2회 시드니문학상 공고

‘시드니한국문학작가회’에서는 모국어 문학에 열정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는 호주 문인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작품을 공모합니다. 관심과 응원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공모분야	시 3~5편, 수필 2편
응모자격	호주에서 거주하며 한국어로 글을 쓰는 누구나
작품대상	신작 포함 2023년 6월-2024년 5월, 국내외 문예지나 언론매체에 발표된 작품
응모마감	2024년 6월 20일
심사	*예심: 관계자 무기명 투표 *본심: 전문가 위촉 (모든 심사는 무기명으로 공정하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발표	『문학과 시드니』 제4호
상금	분야별 1명, 상패 및 상금 각각 1000달러
시상	『문학과 시드니』 제4호 출간기념회
응모방법	이메일 접수. 겹장에 응모 분야, 이름, 연락처 명기 (외에 어떤 정보도 명시하지 말 것). 원고 말미에 발표 시기와 지면, 신작 표시 특전 다수의 발표지면 제공, 신인 당선자일 때는 『문학과 시드니』 등단 작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작품접수	sydneymoonhakk@gmail.com

시드니한국문학작가회 시드니문학상 운영위원회

『문학과 시드니』 제4호에 실을 작품 신작 모집

모집분야	1) 시 - 2편 2) 수필 - 1편
원고마감	2024년 6월 20일
보내실 곳	sydneymoonhak@gmail.com
유의사항	채택된 작품은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투고된 원고는 편집부에서 심사하여 본인에게 통보합니다. 원고의 첫 장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기재해 주십시오. 원고 끝에 약력을 넣어 주십시오. *시드니문학상에 신작으로 중복 투고 가능합니다.



문학과 시드니 편집부

스몰 비즈니스 지원 정보- 1

Service NSW Business Bureau, “소규모 사업체에 ‘맞춤형 지원’ 제공합니다”

6,800여 한인 스몰 비즈니스에 한국어 정보-‘Business Bureau app’으로 사업정착 유도

NSW에는 85만 개 이상의 소규모 사업체가 있으며 이는 전체 NSW 사업체의 97%를 차지한다. 이 사업체들이 고용하는 인력은 170만 명에 달한다. NSW 고용의 43%에 이르는 비율이다. 이 가운데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체는 약 6,800개(NSW 주에만)이다. 현재 주 정부에는 NSW 경제의 주요 근간인 이들을

지원하는 ‘Service NSW Business Bureau’가 있으며, 이 부서는 스몰 비즈니스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무료로 지속적이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호부터 4회에 걸쳐 Service NSW Business Bureau의 지원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적인 조언을 받고 각종 행사, 웨비나,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여 정부 상대 거래 관리가 가능하다. 뿐 아니라 ▲비효율성 감축, ▲정부 계약 입찰 지원, ▲정부 프로그램, 보조금, 이니셔티브 이용 및 이를 활용한 사업 성장법에 대한 안내, ▲소규모 사업체 상품 및 서비스 해외 판매 지원 등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현재 시드니를 비롯해 NSW 전역에 있는 거의 7천 개에 이르는 한인 스몰 비즈니스들에게는 큰 도움을 기대할 수 있을 듯하다. 특히 한국어 통역 서비스(131 450에 연결, 13 77 88 / Service NSW Business Concierge로 연결 요청)가 제공돼 언제든 원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 Service NSW Business Bureau는 스몰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앱(App)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한 곳에 사업체 및 직원 면허를 모아두고 찾아보기, ▲Business Concierge에 연결하여 무료 맞춤형 지원받기, ▲행사 등록이나 Business Connect 프로그램을 통해 독립 자문관 상담 예약하기, ▲탭 몇 번으로 사업체 바우처 프로그램 참여 관리

하기 등 사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스몰 비즈니스는 모든 공동체 경제의 핵심이다. 성공적인 지역 사업체들로 불리는 중심가가 가져오는 혜택은 비단 경제적 이득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영향을 가져온다.

이와 관련, 그렉 웰스(Greg Wells) Service NSW 최고경영자는 “우리는 각 비즈니스에 귀를 기울였고 Service NSW Business Bureau는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모든 배경, 모든 단계의 비즈니스 소유자, 사업 아이디어를 얻고 있는지 여부와 기회, 사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우리는 사업주들이 바쁜 일정에서 정부를 상대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음을 이해하기에 Service NSW Business Bureau는 사업주 및 관계된 이들과 협력하여 비즈니스 운영에서 부딪히는 문화적 장벽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웰스 CEO는 “NSW의 한인 교민들이 소유, 운영하는 지역 사업체는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고, 활기 넘치는 지역 중심가를 만들고, NSW를 더욱 포용적이고 살기 좋은 곳으

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비로 이들 사업체의 번영을 돕고자 Service NSW가 존재한다”고 강한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Service NSW Business Bureau의 카산드라 기븐스(Cassandra Gibbens) 전무이사 또한 “바쁜 사업주들이 스몰 비즈니스의 의무 사항과 시간 관리에 대한 개별적 압박을 모두 해결하려면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Service NSW Business Bureau는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는 Business Concierges와 필수 도구를 손안에 쥐는 ‘Business Bureau App’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모든 문화 배경의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Service NSW Business Bureau에 대한 추가 정보는 전화(13 77 88) 또는 웹사이트(<https://www.service.nsw.gov.au/business>)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어 사용 사업자 인증 수-행정 및 지원 서비스: 1078
 - 건설: 960
 - 숙박 및 식품 서비스: 823
 - 보건 및 사회적 지원: 715
 -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483
- Source : ABS



비즈니스 컨시어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Service NSW Business Bureau 카산드라 기븐스(Cassandra Gibbens, 왼쪽) 전무. 사진: SNSW Business Bureau

NSW 정부의 주요 이니셔티브인 Service NSW Business Bureau (사업국)는 소규모 사업주들이 사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부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맞춤형 지원을 핵심 업무로 한다. Service NSW Business Bureau의 서비스는 NSW 소재 모든 스몰 비즈니스가

이용할 수 있으며 다문화 사업체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즉 사업체들은 ▲전화, 대면 또는 온라인상에서 일대일로 Business Concierge에게 정부 규제를 헤쳐 나가고 필수 라이선스 및 허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내를 받을 수 있고 ▲Business Connect 자문관에게 독립

스몰 비즈니스의 궁금증 Q&A

Service NSW Business Bureau (사업국)는 사업 전 단계에 대해 ‘지속적이고 맞춤화된 지원’을 무료로 제공한다. 스몰 비즈니스들이 Service NSW Business Bureau에 대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사항을 알아본다.

▲ 한국어 사용 사업주들에게 Service NSW Business Bureau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나?
: 통번역 서비스(131 450)에 전화한 뒤 ‘13

77 88번 Service NSW Business Concierge’로 연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즉각적인 전화 통역을 제공하는 전화 라인으로, 통역사는 통역 서비스 사용 특별 교육을 받은 Service NSW Business Concierge에게 전화를 연결해 준다. 그러면 통역사가 13 77 88번으로 전화하여 콜센터에서 Business Concierge로 연결한다. Business Concierge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 Service NSW Business Bureau의 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 사업체들에게 △Business Concierge에서 전화나 대면으로 소규모 사업주들이 정부 규정을 헤쳐 나가도록 돕고, △Business Connect 프로그램을 사업체 성장을 위한 전문가, 맞춤형 조언, 웨비나 및 리소스 제공,

▶ 11면으로 이어짐

스몰 비즈니스의 궁금증 Q&A

▶ 10면에서 이어받음

△정부 프로그램 접근성을 향상하고 사업체의 규제 준수를 돕고자 추가 개발 예정인 Service NSW Business Profile(현재 500,000 개 이상의 기업이 등록되어 있음)과 Business Bureau App 을 포함한 디지털 도구, △조달 및 수출 기회 포함 기타 정부 기관의 관련 지원을 소규모 사업체에 연결해주는 소개 서비스, △상공회의소, 주요 이해 당사자, 카운슬, Investment NSW, 규제 기관과 돈독한 관계 유지 등이 있다.

▲ Service NSW Business Bureau의 주 기능은?

: 올해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체들이 정부 규제를 헤쳐 나가고 자문 지원을 받도록 돕고, △비효율성 감축, △사업체들이 정부 계약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고, △사업체들의 상품 및 서비스 해외 판매를 지원하는 주 기능을 갖추게 된다.

▲ 고객이 Service NSW Business Bureau를 방문할 수 있나?

: 사업체들은 Business Bureau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장에서나 Service NSW

센터에서 전화상으로 지역 Business Concierge와 약속을 잡을 수 있다. 전화(13 77 88) 또는 웹사이트(<https://mybusiness.service.nsw.gov.au/business-concierge>) 에 전화 요청을 남길 수 있다.

▲ Service NSW Business Concierge의 지원은?

: △면허 및 인허가, △바우처, 교부금, 지원금과 같은 재정적 지원, △사업주와 직원들의 정신 건강 지원, △Business Connect를 통해 무료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는 독립 자문사와 연계해준다.

▲ Service NSW Business Bureau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 NSW에 있는 소규모 사업자는 누구나 Service NSW Business Bureau 지원을 받을 수 있다.

Service NSW Business Bureau에 대한 추가 정보는 전화(13 77 88) 또는 웹사이트(<https://www.service.nsw.gov.au/busines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장을 지키는 한 사업자(사진). 업체 운영상 문제는 온라인 도구로 Service NSW Business Bureau의 즉각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사진 : Getty Image / Service NSW Business Bureau



Business Concierge와 약속을 원한다면 전화(13 77 88) 또는 웹사이트(<https://mybusiness.service.nsw.gov.au/business-concierge>)에서 전화 요청을 남기면 된다. 사진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한인 사업자. 사진 : Getty Image / Service NSW Business Bureau

Service NSW Business Bureau

사업체를 위해 만든 파트너십

신뢰할 수 있는 안내.

NSW 정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Service NSW Business Bureau 에 연락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전담 지원을 받으세요.

면허와 허가 관리 도움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의 행사 소식.

마케팅, 현금 흐름, 소셜 미디어에 대한 워크숍과 웨비나 참석.

전화 번호 **13 77 88** 번 Service NSW Business Bureau 로 연락하세요

통역사가 필요하면 **13 14 50** 번으로 전화해서 여기로 연결해달라고 하세요.



NSW 주 '독감 시즌' 조기 시작 전망... 위험 대상은 누구이며 주의 사항은?

보건부의 4월 '호흡기 감시 보고서', 지난해 같은 기간 비해 20% 이상 증가 '확인'

NSW 주의 독감 시즌이 일찍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주 보건당국은 이를 전망케 하는 최신 데이터를 통해 인플루엔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것을 촉구

했다. 이달 둘째 주 NSW 보건부가 내놓은 호흡기 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4월), NSW 주 전역에서는 약 5,160명이 독감 진단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0%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해의 경우 거의 200명에 가까운 환자가 매주 인플루엔자 및 관련 질병으로 병원 응



올해 NSW 독감 시즌이 일찍 시작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보건당국 및 의료 전문가들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예방접종을 권고한다. 사진: ABC 방송 뉴스화면 캡처

모든 납세자를 위한 세금 감면

세금 감면 계산기로 여러분의 감면액을 추정해 보세요.

세금 감면 / 2024년 7월 1일

taxcuts.gov.au/korean 에서 여러분의 세금 감면액을 계산해보세요.

Australian Government



Authorised by the Australian Government, Canberra

캔버라 소재, 호주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급실을 찾았다.

호주 감시 보고서 (Australian Influenza Surveillance Report)를 보면 인플루엔자 사례는 일반적으로 5월에 증가하여 7월 및 8월, 질병 순환이 최고점에 이른다. 올해 NSW에서는 4월에 환자가 증가하고 6월과 7월 최고점에 달했던 2019년과 유사한 독감 시즌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NSW 대학교 보건학과 부교수인 홀리 실(Holly Seale) 박사는 '조기' 독감 시즌 자체가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은 아니라고 말한다.

독감 시즌 시기가 조금씩 변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올해의 경우 독감 발생이 일찍 시작되면서 보건정책 및 의료 전문가들은 거주민들에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인플루엔자 타격, 어린이에게 가장 커

주 정부 감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4월), 10세 미만 어린이 1,458명이 인플루엔자 진단을 받았다. 이는 전체 진단의 28%를 차지한다.

예방접종 관련 기구 'Immunisation Coalition' 의장인 로드 피어스(Rod Pearce) 박사는 "COVID-19 팬데믹 기간에는 독감에 노출되지 않았기에, 현재 5세 미만

어린이는 특히 인플루엔자에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지금 3~4세인 유아의 경우 자연적 면역을 통해 인플루엔자를 경험한 적이 없는 연령으로, 아직 몸이 반응하지 않았던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호주 예방접종 등록 당국 'Australian Immunisation Register' 데이터를 보면 NSW 주에서는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어린이에게 백신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5세 미만 어린이 14명 중 1명만이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은 상태이다.

인플루엔자로부터의 보호, 무엇을 예방하나

실 박사는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지만, 인플루엔자에 대한 오해와 백신의 효과로 인해 사람들이 이 과정(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믿음)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백신접종은 비활성화되거나 약화된 바이러스 배전을 사용해 신체가 인플루엔자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백신의 항원은 면역 체계를 자극하여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감염과 싸우는 항체를 생성한다.

▶ 31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백세까지 호호탕탕"

Happy 100years Senior Club

행복한 시니어들이 함께 하는 화요일에 65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을 초대합니다. 백호대학은 건강한 삶을 꿈꾸는 시니어들의 모임입니다. 한인 시니어분들의 건강과 복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백호대학에 오셔서 삶의 활력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세요.

백호대학 Term 2

☑ **매주 화요일 10am-2pm**

☑ **버우드 RSL Club (96 Shaftesbury Road)**

백호대학 학생증을 받으면 장학금 명목 할인혜택을 받습니다.

Term2 오리엔테이션과 어버이날 행사를 마치고!



<수업시간>		
미술 기초	데생반	10:00-11:30am
	수채화반	12:30-2:00pm
모바일 휴대폰	기초반	10:00-11:30am
	고급반	12:30-2:00pm
사진	기초반	10:00-11:30am
	고급반	12:30-2:00pm
영어	왕기초반	10:00-11:30am
	Hand writing	12:30-2:00pm
무료 특별 강좌	뜨개질반	11:30am-12:30pm
	노래교실	12:30-2:00pm

백호 홈 케어 서비스와 간호 서비스

- 1:1 개별 상담 및 케어 프로그램을 정기 스케줄로 운영
- 보호자 /가족들 과의 정기 미팅을 통해 고객의 안전 복지 만족도 보장
- 전문 서포트 워커들에 의한 철저하고 친절한 서비스
- 안전한 펀드관리
- 상담 -서비스 동의서 작성-펀드관리 선택-개별 프로그램 작성-서포트 워커 매칭 프로그램- 플랜 진행 및 리뷰

기존의 서비스에 대한 리뷰를 해 드립니다 상담 받아 보신 이후 결정하세요.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 전문가의 관리를 통한 홈 케어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백호대학>은 호주 비영리 복지단체 <GCMA 마이리버랜드> 소속으로 한인언론사 <한국신문>에서 주관하는 신개념 시니어 복지학교입니다. 한인 시니어분들의 건강과 복지를 적극 지원하는 <백호대학> 에 오셔서 삶의 활력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세요.

Term2 시작
5월 7일 - 7월 9일

등록문의 0425 282 697 (이기태)



3beauty 산후조리원
3Beauty Health & Wellness Centre

POSTPARTUM as Korean Style

*Private & Separation
Care for Mom&Baby*



About 산후조리원

- Stay 6nights 7days
- Korean Style Postpartum Private Care
- Pre-Post Recovery Body Massage
- Healthy Meals & Snacks
- Rehab Stretching & yoga
- Balanced Diet & Managing Nutrition
- Manage Postpartum Depression



Licensed team
& Nurse



Individualized
Care

Contact us
for more info



0434 319 845

Our Services

- ✓ **Prenatal Care 출산전 관리**
 - Prenatal Fitness Programs
 - Prenatal Body Massage
 - Nutrition for Pregnancy Diabetes
- ✓ **Postpartum Fitness Programs 산후 운동**
 - 1:1 Individual Exercise Program
 - Rehab Stretching & Yoga Class
 - Balanced Diet & Managing Weight-loss
- ✓ **Red Clay Sauna 황토찜질방**
 - Repair Damaged Skin
 - Eliminating Accumulated Toxics from the Body
 - smooth & soften the Skin
- ✓ **Postpartum Services**
<<room & service type>>
VVIP
STANDARD



1 Hazeldean pl Kenthurst NSW 2156



www.3beauty.com.au



3beautyone@gmail.com

3BEAUTY 건강증진센터

여성들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



1탄 : 유방암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이나 유방암관련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

5월 7일 (화요일) 시작

참가 비용 : 전화문의

제한인원 8명

개인별 1:1 맞춤 운동처방 식단관리
간호사 의료 점검 및 다양한 의료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인여성들을 위한 정신건강 (호주 정부 지원 프로그램)

정말 네 마음을 말해줘 (미술 표현 심리)

매주 수요일 10:30AM ~ 13:30PM

참가인원 4명-8명

4주 프로그램

참가비 10불 (재료비 별도)

전문 미술 전공자가 함께하는 여성분들의 깊이 숨겨둔 감정과 마음을
표현하고 정서적으로 힐링을 경험하게 될 특별한 표현예술 프로그램에
여성분들을 초대합니다.



호주 구세군, 연례 'Red Shield Appeal' 모금행사 계획 발표

이달 25-26일 양일간 각 가정 방문, 올해 모금액 목표는 3,800만 달러



올해로 60년을 맞는 호주 구세군(The Salvation Army)이 주요 연례 이벤트인 'Red Shield Appeal' 계획을 발표하고 모금 활동을 시작했다. 사진은 올해 행사 계획을 발표한 뒤 한자리에 모인 주요 관계자들. 사진 : MultiConnexions

호주 구세군(The Salvation Army)이 주요 연례 이벤트인 'Red Shield Appeal'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호주 최대 자선기구 중 하나인 구세군이 호주 전역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기금모금 행사로, 사회적 혜택에서 소외된 빈민-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자선사업 일환이다. 올해로 60년째를 맞는 구세군의

'Red Shield Appeal' 매년 5월 마지막 주 주말을 기해 모금활동을 전개하는 활동으로, 올해에도 오는 5월 25-26일(토-일요일) 양일간 각 가정을 돌며 기부를 받는다. 이와 관련, 호주 구세군은 대니얼 무키(Daniel Mookhey) NSW 재무 장관과 미리엄 글뤼어스(Miriam Gluyas) 구세군 본영대장의 공동주관으로 지난 5월 6일(월) 시드니 도심 Sydney Satrtup Hub에서 미디어 론칭을 갖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활동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간 다문화 마케팅 회사 'MultiConnexions' 이 진행한 이날 행사에는 NSW 주 약 30여 다문화 커뮤니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글뤼어스 본영대장은 "구세군은 지난 140년간 굳은 신념으로 다문화공동체의 곁에서 함께 하며 지원을 제공해왔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구호사업과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도움을 제

공하고 있다"면서 "구세군의 다문화공동체 모금사업 개시를 통해서 각 다문화공동체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을 돕고자 열의를 가진 훌륭한 다문화 사회 대표들이 만나고 서로 의기를 투합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으로 이 행사를 진행한 'MultiConnexions' 에도 감사를 표했다. 무키 장관은 "구세군은 60년간 꾸준히 구세군 연례 레드실드어필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차별 없는 지원을 제공하는 가치있고 포용적인 기관"이라면서 "우리 다문화공동체는 씨실과 날실처럼 엮여 우리 경제와 사회를 구성하는 근간이 되며 실제로 호주 사회에 모든 면에 걸쳐 엄청난 공헌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구세군은 호주 전국 400개의 센터와 2,000개 서비스를 이용한 지원

망을 통해서 노숙인, 약물 및 알코올 중독자 재활, 청소년 지원, 가정·가족 폭력, 빈곤 등 구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현황을 보면 △매 17초마다 한 명의 사람에게 도움 지원, △도움이 필요한 25만 명에게 돌봄 서비스 167만회 제공, △숙소가 필요한 이웃에게 120만 개 이상의 야간 침상 제공, △ '구세군 홀리스 서비스' 를 통해 163만 인분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웹사이트(salvationarmy.org.au)와 전화(13 SALVOS)를 통해 구세군 레드실드어필 성금을 기부하거나 구세군으로부터의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또 각 'Salvos Store' 에서도 성금 기부가 가능하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1800 858 858

저의 인생을 바꿔준 전화번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돈을 지출하면서까지 도박을 너무 자주하시거나 가족, 친구와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계신가요?

도박이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문제가 되고있는 것 같다면, GambleAware 에 전화해서 **한국어**로 주 7일, 24시간 **무료로 비밀 상담**을 받으세요. gambleaware.nsw.gov.au/korean 를 방문하세요.

GambleAware



Property & BUSINESS

FIELD & URBANITE
집 사기 좋은 시기? 바로 지금입니다.
Jenny 0403 316 467



17 May 2024 1587

지속되는 부동산 시장 호황... 연간 최고 가격 상승 기록한 교외지역은

‘도메인’의 House Price Report... QLD의 Parkhurst, 1년 사이 54.2% 올라
 주간 이주-해외 이민자 유입으로 QLD-WA-SA 일부 교외지역 가격 상승 두드러져



부동산 정보회사 ‘도메인’(Domain)의 가장 최근 주택가격 보고서에 따르면 퀸즐랜드, 록햄턴(Rockhampton, Queensland)의 교외지역 파크허스트(Parkhurst)는 지난 1년 사이, 무려 54.2%의 급격한 가격 성장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 교외지역에서 매물로 나온 5개 침실 주택. 사진 : Ray White Rockhampton

호주 부동산 시장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15개월 연속 주택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교외

지역이 확인됐다. 지난 1년 넘게 시장 호황을 이끈 각 교외지역을 보면, 중간 주택가격 20만 7,000달러인 퀸즐랜드(Queensland) 지방 지역에서부터 250만 달러에 달하는 시드니 이너웨스트(inner west)까지 다양하다.

부동산 정보회사 ‘도메인’ (Domain)이 정기적으로 집계하는 가장 최근의 주택가격 보고서(‘Domain House Price Report’)에 따르면 QLD 록햄턴 지역(Rockhampton region) 지역의 파크허스트(Parkhurst), 선샤인코스트(Sunshine Coast)의 와라나(Warana), 서부호주 퍼스(Perth, Western Australia)의 달링턴(Darlington) 등 그 동안 비교적 가격이 저렴했던 일부 교외지역이 구매자의 눈길을 끌면서 지난 12개월 사이, 가장 큰 중간가격 상승을 기록했다.

‘도메인’ 사의 선임연구원 니콜라 파월(Nicola Powell) 박사는 “주택가격 상승이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게 정상” 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주택시장의 자연스러운 역동성” 이라는 그녀는 “교외지역 수준에서 약간 다른 시간대에 부동산 사이클을 통해 성장 지역이 이동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녀에 따르면 이는 ‘과급 효과’ (ripple effect)와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고가의 교외지역에서 시작하여 가격 상승세가 점차 저렴한 가격을 보이던 지역으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 18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카슬브룩 한인 추모공원 Castlebrook Memorial Park

구입 후 관리비 및 사용 연장비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영구히 사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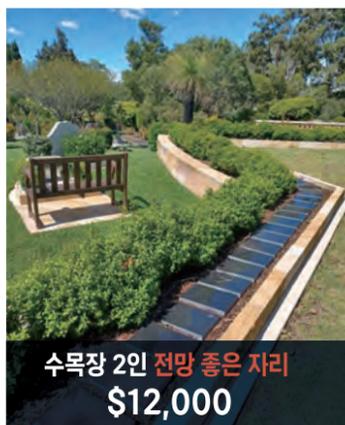
* 7월부터 가격인상됩니다. 그 전에 계획 세우셔서 미래를 대비하고 사시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족수목장 (리드컴 록우드)
 4인 \$23,000



가장 무난하게 인기많은 화장자리
 2인 \$17,000~18,000



수목장 2인 전망 좋은 자리
 \$12,000



가족묘 4인자리 (매장 화장 다 가능)
 \$74,500



일반 매장 자리 (위 아래 2사람 사용)
 \$10,210

영구보존 및 관리 | 가족묘 | 개인묘 | 다양한 화장묘 및 매장묘 판매

무이자 할부판매 *

전문 한국어 상담사

NO 관리비

NO 연장비

상담 문의
홍지윤 Sue Hong



▶ * 20프로 디파짓에 나머지 금액은 무이자 할부가능

매주 금요일 무료투어 전화 예약받습니다.

0450 396 337

리드컴
 Lidcombe

카슬브룩 (라우즈힐역 맞은편)
 Castlebrook

블랙타운
 Blacktown

채스우드
 Chatswood

▶ 17면에서 이어받음

파월 박사는 “만약 구매자가 매우 원하는 교외지역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다수 예비 구입자는 바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근 지역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선사인코스트의 와라나는 현재 중간가격이 120만 달러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지난 12개월 사이 38.5% 성장에 의한 것이다.

이 교외지역 기반의 부동산 중개회사 ‘Elite Lifestyle Properties’의 밍카 젠킨스(Minka Jenkins) 에이전트는 와라나에 대해 “최근까지만 해도 예비 구입자들의 시선을 끌지 못했던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와라나 주택시장은 잠잠하던 편이었고, 전염병 대유행 이후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그녀는 “하지만 이 교외지역은 15km 길이의 해변이 있는, 선사인코스트의 보석 같은 곳”이라고 소개했다.

와라나와 이웃해 있는 교외지역으로는 부디나(Buddina. 중간가격 130만 달러), 보카리나(Bokarina. 140만 달러), 커리문디(Currimundi. 87만2,000달러)가 있다.

젠킨스 에이전트에 따르면 와라나 및 인근 교외지역에는 최근 몇 년 사이 신축 듀플렉스 주택이 다수 들어섰으며, 오래된 단독주택의 개조 작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녀는 “지난 수년 사이의 자본 성장으로 개발자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지역”이라고 말했다.

와라나와 같이 신규 개발을 통한 시장 성장은 록햄턴 지역(region)의 파크허스트가 12개월 사이 무려 54.2%의 가격 성장을 기록한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이 지역 기반의 부동산 중개회사 ‘Ray White Rockhampton’의 라일리 니튼(Riley Neaton) 에이전트는 “이 교외지역은 록햄턴 부동산 시장의 성장 통로”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점점 더 많은 구매자들이 파크허스트의 확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면서 “새 주택부지 개

발도 활발한 편으로, 개발회사들은 많은 공원과 즐길거리를 마련하는 등 가족친화적 주거지역으로 조성하고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니튼 에이전트는 “현재 파크허스트의 중간 주택가격은 68만 달러”라고 소개하면서 “그러나 이 교외지역 주택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녀에 따르면 수년 전까지만 해도 3개 침실에 1개 욕실의 오래된 표준 주택이 대부분인 조용한 교외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재개발을 통해 현대적이고 세련된 고급 주택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파월 박사는 파크허스트의 이 같은 가격 성장(54.2%)에 대해 “극히 놀라운 일”(extraterrestrial)이라며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경험하는 지역의 경우, 일반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퀸즐랜드와 남부호주(SA), 서부호주(WA)의 경우 주간 이주(interstate)와 해외 이민자 유입으로 상당한 인구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높은 주택가격 상승에는 이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월 박사는 “특히 WA의 경우 대부분 지역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매우 타이트한 임대시장과 높은 임대료가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때문에 WA에서는 그동안 저렴한 교외지역 중 일부에서의 놀랄 만큼 높은 가격 성장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퍼스에서 동쪽으로 20km 거리, 문다링 지역(Shire of Mundaring)에 자리한 달링턴(Darlington)은 지난 한 해 동안 35.7%의 가격 상승으로, WA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이 지역 기반의 부동산 중개회사 ‘Earnshaw Real Estate’의 린세이 연쇼(Lindsay Earnshaw) 대표는 “빠른 인구 증가가 이 지역 주택가격 상승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달링턴은 지난 1년여 사이, 구입자들로부터 인기가 많았으며 많은 수의 이주자가 발생했다”면서 “지속되는 인구 유입과 그에

MEDIAN PROPERTY PRICES

	March '24	QoQ	YoY
Sydney	\$1.6M	2.1%	11.1%
Melbourne	\$1.03M	-1.5%	0.7%
Brisbane	\$924K	1.6%	12.5%
Adelaide	\$902K	3.4%	15.8%
Perth	\$777K	1.5%	16.6%
National	\$1.1M	1%	8.9%

Domain

Today HOUSE PRICES BOOM

QUARTERLY COST GREW IN ALMOST EVERY CAPITAL CITY

BRIS 25°

3월 분기 주택가격 집계에서 각 도시별 가격 성장을 보여주는 표. 사진: Nine Network 'Today' 프로그램 화면 캡처

TOP GROWTH AREAS SYDNEY

	Median Price	Annual Change
Kirribilli	\$1.6M	32%
Little Bay	\$1.2M	31%
Glebe	\$2.8M	29%

광역시드니 교외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 상승을 보인 곳은 키리빌리(Kirribilli), 리틀베이(Little Bay), 글리브(Glebe)였다. 사진: Nine Network 'Today' 프로그램 화면 캡처

따른 수요가 높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파월 박사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을 겪든 각 교외지역 수준에서는 항상 다양한 가격 상승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현재 호주는 수십 만 채의 서브 부동산 시장이 있지만 모든 교외지역의 성과는 동일하지 않다”면서 “이제 구매자들은 구입 비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더 저렴한 교외지역의 수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매자들은 어느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했을 때 비용 대비 더 큰 자본 가치를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교외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 주택가격 성장 상위 25개 교외지역 (State / suburb / Property : 중간가격 / 연간 상승률)

- QLD / Parkhurst / House : \$680,000 / 54.2%
- QLD / Warana / House : \$1,210,000 / 38.3%
- QLD / Manly / House : \$1,565,000 / 38.2%
- SA / Gawler South / House : \$575,000 / 36.9%
- WA / Darlington / House : \$1,075,000 / 35.7%
- WA / Kallaroo / House : \$1,078,250 / 33.9%
- SA / Elizabeth North / House : \$400,500 / 33.5%
- WA / Spalding / House : \$275,000 / 32.5%

- NSW / Kirribilli / Unit : \$1,615,000 / 32.4%
 - QLD / Bundaberg East / House : \$475,000 / 32.3%
 - WA / Shelley / House : \$1,160,000 / 31.8%
 - NSW / Little Bay / Unit : \$1,160,000 / 31.1%
 - SA / Plympton / Unit : \$385,000 / 30.5%
 - SA / Taperoo / House : \$642,750 / 30.5%
 - QLD / Kuraby / House : \$1,050,000 / 30.4%
 - WA / Armadale / House : \$410,000 / 30.2%
 - WA / Camillo / House : \$450,000 / 29.9%
 - WA / Withers / House : \$370,000 / 29.8%
 - QLD / Mount Morgan / House : \$207,500 / 29.7%
 - NSW / Glebe / House : \$2,790,000 / 28.6%
 - NSW / Woolloomooloo / Unit : \$1,285,000 / 28.4%
 - QLD / Moura / House : \$235,000 / 27.7%
 - WA / Kenwick / House : \$497,500 / 27.6%
 - WA / Parmelia / House : \$459,000 / 27.5%
 - QLD / Mount Coolum / House : \$1,293,750 / 27.5%
- Source : Domain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ABC SEAMLESS \$

거터(Gutter. 지붕 홈통) 전문 할인점
거터에 관한 모든 것, 저희에게 맡기세요!!!

NOW 20% 할인!

25년 이상의 풍부한 경력
월등한 가격 경쟁력

지붕 홈통(Roof gutter), 처마(Leafguard),
금속제 지붕(Metal Roofs) 및 지붕 보수

무료견적 TEL: 02 9748 3022

WEB: www.abcseamless.com.au | E-MAIL: abc@abcseamless.com.au

Lidcombe Central

A PARKSIDE VILLAGE COMMUNITY



AIO REAL ESTATE
공식 분양 대행사

REGISTER YOUR INTEREST
Tower B - Banksia



Lidcombe Central

- 위치 : 4 - 12 Railway St Lidcombe NSW 2141
- 건축 개요 : 아파트 3개동 301세대
(Tower A: 13층, B: 17층, C: 15층)
Tower B - 125 units 분양 예정
(1 Bed 62 units, 2 Bed 31 units, 3 Bed 32 units)
- 착공 2024년 2월 • 완공 : 2025년 연말 예정
- Display : 6 Raphael Street Lidcombe NSW 2141



Amy

0425 544 030



Caden

0410 237 800



John

0430 235 341



Lawrence

0405 329 005



Jennifer

0439 058 058



Patrick

0432 632 876



Sun

0432 179 787



James

0451 665 007

고밀도 주거지, 지속 증가... 호주인 'House Party', 추억으로 남을 수도

'CoreLogic'의 ABS 데이터 분석... 멜번, 4월 인구밀도에서 광역시드니 '추월'
멜번 CBD 주거밀도, 평방킬로미터당 38,400명... "사회적 관계 발전 저해" 지적



고밀도의 아파트 거주가 증가하면서 호주인들의 사회적 관계 방식도 바뀌고 있다. 한 주택문제 연구원은 집을 사회적 허브로 삼는 경향이 있는 교외의 젊은 가족과 비교해 아파트 설계에서는 거주자들이 함께 모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창의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Tom Ross

붉은 컵들이 주방 벤치톱(benchtop)에 늘어서 있고, 건너편 소파에는 술기운을 느끼는 사람들이 널부러져 있으며, 시끄러운 베이스 소리가 뒷마당으로 흘러나온다. 주말 저녁, 교외지역의 주택에서 펼쳐지는 하우스 파티(house party)는 대부분 호주인들에게 친숙한 풍경이다.

하지만 아파트 주거가 확산되면서 이런 풍경은 이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다. 전국적으로 주거비용 상승과 도심 지역 성장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 높은 밀도의 주거지역에 자리잡기 때문이다.

멜번(Melbourne)에 거주하는 20세의 엘르 플린

트-로빈슨(Elle Flint-Robinson)씨와 같은 이들은 소음 불만이 두려워 새 아파트에서 이런 파티를 열지 못한다. "이웃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그들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물론 친구들 대부분 작은 규모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기에 친구들과 어울릴 때는 집 대신 바(bar)에서 모인다.

또 다른 여성 에즈라(Ezra, 20)도 같은 상황이다. 높은 생활비 부담도 있지만, 멜번 이너노스(inner-north)의 칼튼(Carlton)에 있는 그녀의 아파트가 하우스 파티를 열기에 너무 작은 규모이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의 인구조사인

2021년 자료를 보면 엘르와 에즈라씨는 당시 아파트에 거주하던 호주인 250만 명에 포함된 이들이다.

2016년 이후 아파트 생활 증가는 개인 주택 증가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대부분의 아파트 거주자는 광역시드니에 거주하는 편이었지만 데이터를 보면 광역멜번(Greater Melbourne) 또한 시드니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부동산 분석회사 '코어로지'(CoreLogic)이 통계청(ABS)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멜번은 지난달(4월) 인구밀도가 높아져 시드니를 추월했다.

인구밀도 면에서 두 번째 도시는 시드니가 아닌 애들레이드(Adelaide, SA)였

으며, 시드니가 세 번째 도시였다. 물론 코어로지의 분석에서 블루마운틴(Blue Mountains)과 센트럴코스트(Central Coast region)가 '광역' 시드니에 포함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도시는 다윈(Darwin, NT)이었으며, 밀도 규모는 멜번에 비해 약 10배가 낮았다.

2022-23년 ABS 인구통계를 보면 멜번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성장률을 보였으며, 멜번 도심(Central Business District) 거주인구는 평방킬로미터당 3만8,400명으로 호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기록했다.

빅토리아(Victoria) 주 정부가 기존 교외지역에 중간 밀도의 주택을 건축, 도시를 보다 콤팩트화 한다는 계획을 추진하는 가운데, 아파트 생활이 호주인의 사회적 관계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되어가고 있다.

디킨대학교(Deakin University) 주택문제 연구원 피오나 앤드류스(Fiona Andrews) 박사는 "고밀도 고층 주거지 개발로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종종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그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일부 가족은 작은 규모

의 아파트에 거주할 때 '폐쇄 공포증'(claustrophobic)과 함께 '함정에 빠진 것 같은'(kind of trapped)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앤드류스 박사는 "이런 이들은 실제로 밖으로 나가 다른 이들과 대화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과 함께 (적합한) 공간을 갖고자 하는 진정한 욕구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 각 도시별 인구 밀도 (per square kilometre)

시드니: 440.7명
브리즈번: 170.9명
멜번: 521.1명
애들레이드: 443.7명
퍼스: 359.9명
호바트: 149.3명
다윈: 47.6명
캔버라: 197.9명

-이 집계에서의 광역시드니는 블루마운틴(Blue Mountains)을 포함한 '광역수도통계지역'(Greater Capital City Statistical Area, GCCSA)을 말함.

Source: CoreLogic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HOME LOAN CENTRE

LoanCare Homeloans



M-326343

이차율 비교!

정확한 조언!

빠른 승인!

01 주택융자 up to 95%

02 자동차 & 장비
어디서 사든 가능

03 Private Lending
(2nd Mortgage도 가능)
\$50,000~\$3M까지

04 상업건물 up to 75%
(Lo Doc 70%)

05 Lo Doc (No Tax Return)
up to \$2.5M

06 Business & Construction Loan

필요할 때 힘이되는 용자전문가

M. 0421 578 822 E. linaleeau@gmail.com
8A, 38 Rowe St, Eastwood DIRECTOR: Lina(Sang Rye) LEE



PROJECT MARKETING
HOUSE AND LAND PACKAGE
SALES AND AUCTION
PROPERTY MANAGEMENT

Where Dreams
Come Home

02 9884 7811
503, 7 Railway st, Chatswood

집을 팔고자 하시는 분들!! 용자 때문에 고민이 많으십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맡겨 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가격에 팔아 드립니다!

재테크, 자산관리 부동산 세미나

- 1 왜 호주 부동산인가?
- 2 첫 주택 구입자의 스탬듀티
- 3 스탬듀티와 렌드 텍스
- 4 호주 부동산은 과연 안전할까?
- 5 호주 부동산 상승 요인
- 6 부동산 구매시 꼭 살펴야 하는 중요사항

일시 2024년 5월 25일 토요일 저녁 6시

장소 503, 7 Railway St, Chatswood NSW 2067

예약문의 Jenny 0403 316 467

맛있는 저녁, 다과 및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제한적이니 **사전예약**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드립니다.



아파트 보다는 주택을 구입하고 싶으신가요?

아파트 가격으로 여러분이 꿈에 그리던 House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Rouse Hill 라우즈힐

Price: 1.2mils



Pemulwuy 패물웨이

Price : 1.4mils



Leppington 렘핑턴 Land only 땅만 구입 가능

Price : 1mils



Jordan Springs 조던 스프링스

Price : 1mils



Jenny Cho

Licensed Agent/LREA 20134299

Mob: 0403 316 467

Email: jenny.fieldandurbanite@gmail.com

FIELD & URBANITE

Best choice for entertainment

INSIDE Magazine

17 May 2024

'생활비 절감' 목표... 저렴한 의약 품 등 내년 선거 앞두고... A3면

노인요양-재생에너지-보건 부문 등 '지원 강화'... A4면



'The Voice to Parliament Handbook', 호주 도서출판 대상 '최고상' 수상

국민투표까지 갔던 'The Voice' 소재... ABIA 시상서 'ABIA Book of the Year'에 13세 이상 청소년 대상 도서에는 Melissa Kang-Yumi Stynes의 'Welcome to Sex'



호주 출판회사, 작가, 편집자 등 모든 관계자들의 최대 이벤트인 올해 'Australian Book Industry Awards'(ABIA)에서 이를 주관하는 Australian Publishers Association는 22개 카테고리에서 각각의 업적을 인정했다. 사진 : ABC 방송 프로그램 'ABC 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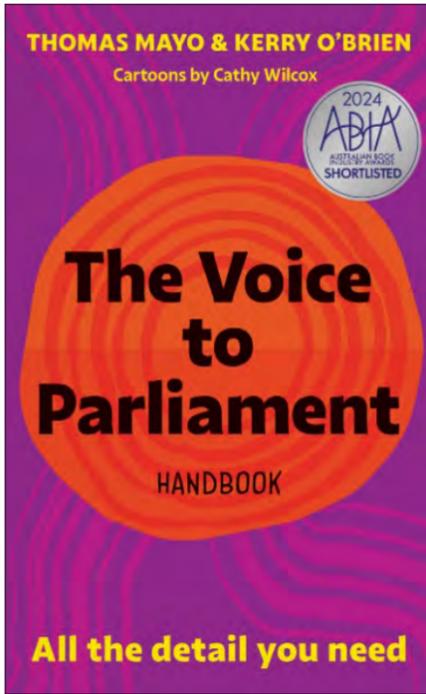
호주 도서출판 관계자, 작가들의 최대 이벤트인 올해 'Australian Book Industry Awards' (ABIA)에서 가장 화제가 된 도서는 'The Voice to Parliament Handbook' 이었다. 지난해 국민투표에 부쳐졌던(결과는 반대가 더 많았다) 'The Voice to Parliament'의 가이드북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은 지난 5월 9일(목), 멜번에서 개최된 올해 ABIA에서 최고 영예인 'ABIA Book of the Year'와 함께 일반 논픽션 도서에 주어지는 'General Non-Fiction Book of the Year' 및 사회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Social Impact Book of the Year'를 동시에 차지했다.

<The Voice to Parliament Handbook>은 원주민 지도자이자 'Uluru Statement of the Heart' 서명자 중 한 명이었던 토마스 마요(Thomas Mayo), 그리고 호주 공영 ABC 방송 시사 프로그램 'Four Corners' 및 '7.30' 진행자였던 저명 저널리스트 케리 오브라이언(Kerry O'Brien)씨가 공동 저술한 것으로, 지난해 국민투표가 있기 전에 출간됐었다. 'Voice to Parliament'는 연방 의회 내에 호주 원주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상설 자문기구를 헌법으로 명시하자라는 취지로, 지난 2022년 집권한 노동당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가 취임 후 가장 먼저 시도한 정책이다.

이는 헌법을 수정하는 것이기에 헌법에 명시된 문구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지난해 국민투표를 실시(10월 14일)했지만 반대의견이 더 많아 부결됐다(The Voice에 대해서는 한국신문 2022년 8월 5일 자, 2023년 4월 8일 자, 10월 14일 및 22일 자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Uluru Statement of the Heart'는 지난 2017년 호주 전역 원주민 대표들은 울룰루에서의 며칠간의 회의 끝에 의견 합의를 거쳐 "우리 원주민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우리의 땅에서 정당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First Nations Voice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성명서이다. 2022년 5월 연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노동당 Anthony Albanese 대표는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이 제안을 받아들일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해 국민투표를 앞두고 'Voice to Parliament' 캠페인을 벌이면서 술한 어려움에 직면했던 마요씨는 ABC RN 'Breakfast'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Voice to Parliament에 대한) 진실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자 손에 짤 수 있으며,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전달 및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간단한 핸드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말로 이 책을 내놓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공동 저자인 오브라이언씨는 마요씨와 협력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Voice to Parliament"와 그것이 제시하는 도전, 그리고 모든 호주인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지금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국민투표)이라 생각하기에 Voice에 대한 논의와 토론 과정을 돕고 이에 대한 오해와 혼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ABIA를 주관하는 호주 출판협회(Australian Publishers Association)는 이 책을 '올해의 도서' (ABIA Book of the Year)로 선정하면서 "The Voice to Parliament가 부결되었음에도 이 핸드북은 호주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가슴 아프게 일깨워 준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 23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22면에서 이어받음



올해 ABIA 최고 영예인 '올해의 도서'(ABIA Book of the Year) 대상자로 선정된 <The Voice to Parliament Handbook>. Australian Publishers Association은 "호주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가슴 아프게 일깨워 준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문학' 부문, Trent Dalton 및 Pip Williams씨 수상

올해 ABIA는 전체 22개 카테고리에서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편집자 및 출판회사들의 업적을 인정했다.

지난 2019년 데뷔작 <Boy Swallows Universe>로 그해 ABIA에서 여러 상을 차지했던 트렌트 달튼(Trent Dalton)씨는 세 번째 소설 <Lola in the Mirror>(4th Estate, HarperCollins Publishers 출간)로 'Literary Fiction Book of the Year'를 차지했다.

이 작품은 폭력적인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 2030 올림픽을 준비하는 브리즈번(Brisbane)에 대해 작가 자신이 "위기 수준"이라고 언급한 노숙자 문제를 다루었다.

2020년 베스트셀러였던 <The Dictionary of Lost Words>의 작가 피프 윌리엄스(Pip Williams)씨는 이 작품의 후속작으로 내놓은 <The Bookbinder of Jericho>(Affirm Press 출간)로 'General Fiction Book of the Year'의 주인공이 되었으며, 동시에 이 작품을 출간한 'Affirm Press'사에 'Marketing Strategy of the Year'을 안겼다.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윌리엄스씨의 이 작품은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의 제본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계급 출신 두 자매인 페기(Peggy)와 모드(Maude)의 이야기를 담아낸 것이다.

작가는 ABC 방송 문화 프로그램 'The Book Show'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나 2차 대전에 관한 작품은 무수히 많다. 하지만 내가 발견한 것은 대부분 참호 속의 군인, (전장에 나간 가족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여성에 대한 묘사, 아니면 스파이에 관한 것이었다"며 제본소 노동자의 이야기를 다른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호주 최고 권위의 문학상 가운데 하나인 'Miles Franklin Literary Award'를 수상(2012년)한 바 있는 안나 펀더(Anna Funder)씨는 <Wifedom: Mrs Orwell's Invisible Life>(Hamish Hamilton, Penguin Random House Australia 출간)로 'Biography Book of the Year'를 수상했다.

이 책은 펀더씨가 영국 작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아내 아일린(Eileen)이 쓴 일련의 편지를 발견한 후 쓴 전기 작품이다. 작가(Anna Funder)가 발견한 편지들은 오웰에 대한 여섯 권의 전기에서 볼 수 없었던 그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펀더 작가는 이 편지를, 아일린씨의 이야기를 허구화하여 써 나가는 것을 고려했지만 나중에 회고록(memoir), 픽션(fiction), 전기(biography) 형식을 혼합한 비정통적 방식으로 저술했다고 밝혔다.

신인 작가에게 주어지는 'The Matt Richell Award for New Writer of the Year'는 시드니 기반의 작가 매들린 그레이(Madeleine Gray)씨에게 돌아갔다. 그녀에게 이 상을 안긴 작품은 데뷔작 <Green Dot>(Allen & Unwin 출간)로, 20대 여성과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직장 동료간의 아픈 연애와 감정적 후유증을 다룬 'sad girl novel'이다.

멜리사 강(Melissa Kang-유미 스타인즈(Yumi Stynes)씨의 글에 제니 레이섬(Jenny Latham)씨의 일러스트가 들어간 <Welcome to Sex>(HGCP Non-Fiction, Hardie Grant Children's Publishing 출간)는 'Book of the Year for Older Children (ages 13+)'을 차지했다. 이 책은 비평가들이 내용에 대해 직원을 학대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후 생필품 대형 매장인 'Big W'가 도서코너에서 판매 중단을 결정해



<Lola in the Mirror>로 'Literary Fiction Book of the Year'를 차지한 트렌트 달튼(Trent Dalton, 사진 가운데) 작가. 사진은 올해 Netflix가 사이먼 베이커(Simon Baker)와 피비 톤킨(Phoebe Tonkin)을 주인공으로 그의 데뷔작 <Boy Swallows Universe>을 드라마로 촬영하는 현장에서 스크린을 통해 배우들의 연기를 보고 있는 달튼씨의 모습이다. 사진: Netflix



영국 작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아내 아일린(Eileen)이 쓴 일련의 편지를 기반으로 하여 회고록(memoir), 픽션(fiction), 전기(biography) 형식을 혼합한 비정통적 방식의 전기 작품 <Wifedom: Mrs Orwell's Invisible Life>을 출간한 안나 펀더(Anna Funder) 작가는 'Biography Book of the Year'의 수상자가 됐다. 사진: Australian Publishers Association



올해 ABIA에서 'Commissioning Editor of the Year'로 선정된 HarperCollins Publishers 사의 소설 부문 편집장 캐서린 밀튼(Catherine Milne)씨. 사진: Australian Publishers Association

출판계의 이목을 끈 바 있다.

아울러 멜리사 루카센코(Melissa Lucashenko)씨는 <Edenglassie>(University of Queensland Press 출간)로 'Small Publishers' Adult Book of the Year'의 주인공이 되었으며, <Empyrean>이라는 판타지 시리즈로 유명한 미국 작가 레베카 야로스(Rebecca Yarros)씨는 New York Times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Fourth Wing>(Piatkus, Hachette Australia 출간)으로 외국 작가의 작품에 주어지는

'International Book of the Year'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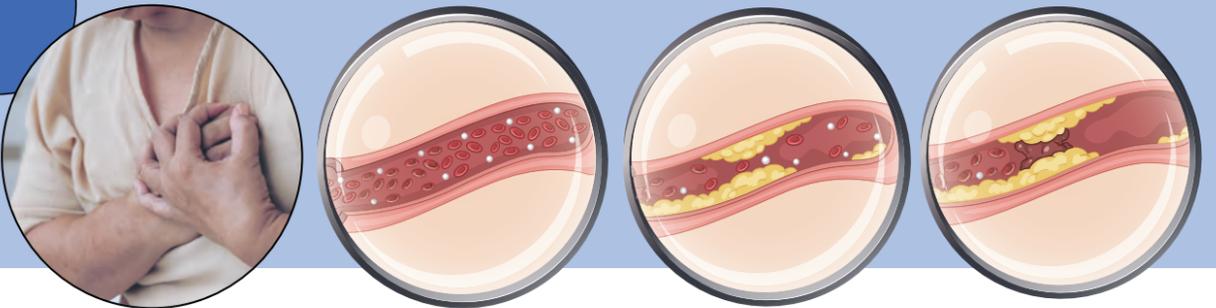
한편 서부호주 부름(Broome, Wesyern Australia)에 있는 원주민 도서 출판회사 'Magabala Books'는 'Small Publisher of the Year'를, 대형 출판회사 'Penguin Random House Australia'는 'Publisher of the Year'를 수상했다.

▶26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심근경색 뇌졸중 급증 이유 1,2위는? 고혈압 & 고지혈증



▶한국인 10년 새 심근경색증 54.5%, 뇌졸중 9.5% 증가

한국의 연간 심근경색증 발생건수는 약 3만 5천건, 뇌졸중 발생 건수는 약 11만건에 달한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심근경색 및 뇌졸중의 발생건수 및 발생률을 분석해서 한국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심뇌혈관질환 발생 통계』에 따르면, 10년 새 심근경색증의 발생규모는 54.5% 증가했으며, 뇌졸중은 약 9.5% 증가했다. 이들 심혈관질환은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질환이며, 생존한 경우에도 심각한 후유 장애를 남길 수 있어 질병부담이 매우 큰 질환들이다.

▶10년간 심혈관질환 발병 기여도 1위 고혈압, 2위 고지혈증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나 뇌로 가는 혈관들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진행되는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등을 심혈관질환이라고 부른다. 심혈관질환은 전세계 사망원인 1위이자 돌연사의 주범으로 꼽힌다.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연구팀은 34개국 150여만명을 대상으로 심혈관질환의 5가지 위험요인들(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흡연)이 실제로 10년동안 심혈관질환 발병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 고혈압의 심혈관질환 기여위험도는 남녀 각각 29.3%와 21.6%로 다섯가지 위험요인 중 1위를

차지했다. 두번째로 심혈관질환 발병의 원인이 된 질환은 고지혈증(non-HDL 콜레스테롤)으로 기여위험도가 남녀 각각 15.4%와 16.6%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쿠바산 폴리코사놀』, 단일원료로 혈압&콜레스테롤 조절

쿠바산 폴리코사놀은 쿠바에서 자라는 사탕수수 잎과 줄기부분의 왁스에서 8가지 고지방족 알코올을 특정 비율로 추출 정제하여 만든 것으로, 2006년 한국식약처로부터 국내 최초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았으며, 2019년 ‘혈압 조절 기능성’까지 인정받았다.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과 ‘혈압조절’ 기능성 두 가지를 모두 인정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건강기능식품 원료이다. [섭취량 :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5-20mg), 혈압 조절(20mg)]

쿠바 국립과학연구소에 따르면, 폴리코사놀을 매일 20mg씩 꾸준히 섭취할 경우 총콜레스테롤 수치와 LDL콜레스테롤 수치는 각각 11.3%와 22% 감소하고, HDL콜레스테롤 수치는 29.9% 상승했다. 또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시험 결과, 쿠바산 폴리코사놀 20mg을 12주간 섭취했을 때 7.7%의 혈압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통증이 무섭다!

관절염·위염 예방하려면 세포 손상 도미노를 막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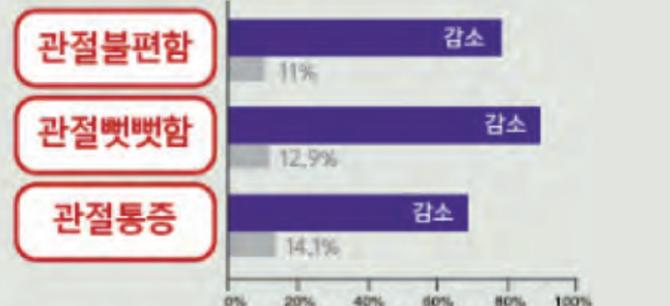


위장관 상태 평가 척도(평균점수)



비즈왁스알코올의 위장관 현상을 가진 대상에 대한 효과 *시험기간: 6주 *섭취방법: 비즈왁스알코올 50mg 2정 섭취(총100mg)
*출처: revista CENIC Ciencias Biologicas, Vol. 43, No. 1., pp 9-16, eneno -ebril, 2012
*시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 *몇 가지 항목에 유의적 차이를 보임

위막(WOMAC) 점수 변화



골관절염 현상에 대한 비즈왁스알코올의 효과 평가 * 시험기간: 6주
*섭취방법: 비즈왁스알코올 50mg 2정 섭취 (총100mg)
*출처: 대한내과학회지 Korean J Intern Med 2014;29:191-202
*시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님

▶ 한국 65세 이상 무릎관절증 160만명 & 위염·십이지장염 120만명

노년에 겪는 만성 통증은 신체기능의 저하와 활동장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정서상태의 변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통증으로 노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질환들로는 관절염과 위염을 들 수 있다.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퇴행성관절염 평균 유병률은 전체 30%, 여성은 43.5%로, 1년동안 무릎관절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인원은 160여만명이었다. 위염은 복통, 속쓰림, 소화불량, 복부팽만감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65세 이상 인구 중 한해 120만명이 위염 및 십이지장염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위-식도역류병 진료인원까지 포함하면 약 2백5십만명에 달한다.

▶ 세포가 손상되어 관절과 위(胃)의 방어막이 사라지면 통증이 생긴다.

관절과 위(胃)는 염증이나 통증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각각의 방어막을 가지고 있다. 관절의 방어막은 프로테오글리칸, 위의 방어막은 위점액이다. 프로테오글리칸은 관절이 받는 충격을 스프링처럼 흡수해서 연골을 보호하고 연골의 파괴를 막는 역할을 하고, 위점액은 위점막층을 둘러싸고 강한 위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한다. 프로테오글리칸의 감소는 관절염과 관절통증의 원인이 되고, 위점액의 감소는 위염 및 위궤양, 더 나아가 위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프로테오글리칸과 위점액이 감소하는 공통적인 원인은 세포의 손상에서 찾을 수 있다. 연골세포가 손상을 입으면 관절의 주성분인 프로테오글리칸이 생성되는 속도보다 분해속도가 빨라져 연골조직이 파괴되면서 관절염이 진행된다. 마찬가지로, 위점액세포가 손상되면 위점액의 생성이 감소되고 위를 보호하던 보호막이 파괴되면서 염증과 통증의 발생으로 이어진다.

▶ 세포막의 지질·단백질 항산화 탁월 BWA(비즈왁스알코올)

비타민C와 코엔자임Q10은 대표적인 항산화물질로 꼽힌다. 그런데,

이들 보다 세포막에서 더 강력한 항산화능력을 입증한 물질이 있다. 쿠바의 벌집 밀랍 왁스에서 추출 정제한 BWA(비즈왁스알코올)은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세포막의 지질과 단백질에 대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확인시켰다. 쿠바 국립과학연구소(CNIC)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중년 남녀 50명이 비즈왁스알코올을 매일 100mg씩 섭취했을 때, 활성산소에 의해 지질이 산화되면서 생성되는 지질과산화물질(MDA)이 25% 감소했으며, 활성산소에 대항하는 총항산화능(TAS)은 약 22%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활성산소 라이칼 시약(DPPH)을 이용한 활성산소 제거 능력 측정에서 비즈왁스알코올은 코엔자임Q10보다 2.7배 더 높은 제거능력을 보였으며, 수용성 항산화물질인 비타민C보다 비즈왁스알코올이 혈액 내 지질 단백질에 대해 더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 연구를 총괄했던 조경현원장(레이텔연구원)은 “관절염이나 위염은 세포막의 지질 단백질 산화되면서 이로 인해 염증과 통증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비즈왁스알코올의 강력한 항산화 기능은 이들 질병을 예방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 항산화·관절건강·위건강

3중 기능성원료 BWA(비즈왁스알코올)

비즈왁스알코올은 단일원료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항산화·관절건강·위건강 3중 기능성을 인정받은 유일한 건강기능식품 원료다. 비즈왁스알코올은 세포막 지질·단백질에 대한 강력한 항산화기능을 바탕으로, 연골세포의 손상을 막아 관절의 주성분인 프로테오글리칸을 보호하고, 위세포의 손상을 억제함으로써 위점액을 증가시켜 위점막을 보호한다. 6주간의 비즈왁스알코올 인체적용시험 결과, 복통·속쓰림·위산 역류·오심·구토·복부가스팽창 등의 위장관 증상이 70%이상 개선을 확인했다. 또 다른 6주간의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관절통증·관절뻣뻣함·관절의 물리적 기능 개선 효과도 확인받았다.

(편집자주)



시와 산문이 있는 자리

거미의 터

지붕 밑 서까래 사이
거미가 무허가 건물을 짓고 있다

나는 소심한 관공소 직원처럼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 버린다

허공 어디에 뿌리가 있는 것일까
없애 버리고 나면 어느새
새집이 들어서 있고

어느새 긴 짝이 자라
앞 진 겨울나무를 깎고 있다

담벼락에 열기설기 놓여있는 부서진 기둥들
연필로 그어놓은 흐릿한 설계도면을
접었다 펼쳤다 한다

비계 위에 다리가 아슬아슬 걸려있다

울렁울렁 물결이 출렁거린다
위태롭게 떠 있는 돛단배 하나
빛줄을 감았다 풀기를 반복하더니
허공 깊숙이 닻을 내린다

거미는 기둥 하나를 품고 있다

시작 노트

무심코 쓸어버린 거미집, 쓸어버리고 나면 어느새 새 집이 들어서 있다. 허공 어디에 뿌리라도 있는 것일까. 허공은 누구의 영역일까. 거미는, 밤새 설계도면을 접었다 폈다 고민 하곤 했던 아버지를 닮았다. 바람이 불고 다리가 휘청여도 거미가 품은 기둥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민명숙

2017년, 2023년 재외동포문학상 수상,
문학동인 캥거루 회원.

▶23면에서 이어받음

■ ABIA 2024 수상 내역

- ABIA Book of the Year : The Voice to Parliament Handbook (Thomas Mayo and Kerry O'Brien / Hardie Grant Publishing)
- Audio Book of the Year : The Teacher's Pet (written and narrated by Hedley Thomas / Macmillan Australia Audio, Pan Macmillan Australia)
- Biography Book of the Year : Wifedom: Mrs Orwell's Invisible Life (Anna Funder / Hamish Hamilton, Penguin Random House Australia)
- Book of the Year for Older Children (ages 13+) : Welcome to Sex (written by Melissa Kang and Yumi Stynes, illustrated by Jenny Latham / HGCP Non-Fiction, Hardie Grant Children's Publishing)
- Book of the Year for Younger Children (ages 7-12) : It's the Sound of the Thing (Maxine Beneba Clarke / HGCP Older Readers, Hardie Grant Children's Publishing)
- Children's Picture Book of the Year

- (ages 0-6) : A Life Song (written by Jane Godwin, illustrated Anna Walker / Puffin, Penguin Random House Australia)
- General Fiction Book of the Year : The Bookbinder of Jericho (Pip Williams / Affirm Press)
- General Non-Fiction Book of the Year : The Voice to Parliament Handbook (Thomas Mayo and Kerry O'Brien / Hardie Grant Explore, Hardie Grant Publishing)
- Illustrated Book of the Year : Australian Abstract (Amber Creswell Bell / Thames & Hudson Australia, Thames & Hudson)
- International Book of the Year : Fourth Wing (Rebecca Yarros / Piatkus, Hachette Australia)
- Literary Fiction Book of the Year : Lola in the Mirror (Trent Dalton / 4th Estate, HarperCollins Publishers)
- Small Publishers' Adult Book of the Year : Edenglassie (Melissa Lucashenko / University of Queensland Press)
- Small Publishers' Children's Book of the Year : Artichoke to Zucchini: an alphabet of delicious things from around the world (Alice Oehr / Scribble, Scribe Publications)

- Social Impact Book of the Year : The Voice to Parliament Handbook (Thomas Mayo and Kerry O'Brien / Hardie Grant Explore, Hardie Grant Publishing)
- The Matt Richell Award for New Writer of the Year : Green Dot (Madeleine Gray / Allen & Unwin)
- Lloyd O'Neil Hall of Fame Award : Fiona Stager (co-owner of Avid Reader and Where the Wild Things Are)
- Pixie O'Harris Award : Jane Godwin
- Bookshop of the Year : Fullers Bookshop (Tasmania 소재)
- Commissioning Editor of the Year : Catherine Milne / HarperCollins Publishers)
- Marketing Strategy of the Year : The Bookbinder of Jericho / Affirm Press)
- Small Publisher of the Year : Magabala Books
- Publisher of the Year : Penguin Random House Australia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ACC 5월 특강

ACC는 교민들의
건강과 성장을 위한
특강을 매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공황장애

2024.05.21. PM 7:30

강사 : 김기환 교수

강사소개

- Ph.D (Psychology)
-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Master of Psychology
-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Bachelor of Psychology
-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파워

2024.05.28. PM 7:30

강사 : JD Park 교수

강사소개

- 현) 호주 기독교 대학 스크린 & 미디어 학과 교수
- 전) 기프트인 픽 방송본부장
- 전) 보만필름 본부장
- 전) 힐송 1 - Heart Film Project, Frontline Editor, Producer
- 및 한국 MBC다양한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콘텐츠
- 기술 감독 및 편집 참여



기분 다스리기

2024.06.04. PM 7:30

강사 : 서미진 교수

강사소개

- One & One Counselling clinic
- Director of Korean lifeline
- Dean of Studies, Australian College of Christianity
- Dr in Christian Counselling
- Supervisor and clinical member of Australian counselling Association



강사소개

- 현) 브리즈번 아름다운 우리교회 담임
- ACC (현) 호주기독교대학교 신학과 교수
- 침례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
- 고려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M.Div)
- 미국 Biola Talbot Theological Seminary 수학
- 호주 Canberra University of Nations
- 성경연구학교 (S.B.S) 강사
- 생터 성경사역원 전문강사

구약 성경 한눈에 보기

2024.06.11. PM 7:30

강사 : 금진섭 교수



전과정 온라인 가능

CHC81015	상담학과 준석사	Graduate Diploma Of Relationship Counselling
CHC51015	상담학과 준학사	Diploma Of Counselling
CHC43315	정신건강 Cert IV*	Certificate IV In Mental Health*
CHC42315	교목과 목회돌봄*	Certificate IV In Chaplaincy And Pastoral Care*
CHC43015	노인돌봄 Cert IV*	Certificate IV in Ageing Support*
SIS50321	스포츠 준학사	Diploma Of Sport
SIS40321	스포츠코칭 Cert IV*	Certificate IV In Sport Coaching*

*표시는 정부생활비보조 어스터디 가능한 학과입니다. 상위과정은 어스터디 가능 코스와 더불어 degree 로 하시면 많은 장학금 적용을 받아서 공부 가능합니다.

11237NAT	신학 Cert IV*	Certificate IV in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11238NAT	신학 준학사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11239NAT	신학 고급 준학사	Advanced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11231NAT	신학 준석사1	Graduate Certificate in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11232NAT	신학 준석사2	Graduate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CUA51020	영상미디어 준학사	Diploma of Screen and Media
CUA31020	영상미디어 Cert III*	Certificate III in Screen and Media*
CUA41220	영상미디어 Cert IV*	Certificate IV in Screen and Media*



Excellence in Christian Education - Truth Education Restoration
Australian College of Christianity
호주기독교대학교 RTO 40892 CRICOS 03461B

ACA | AUSTRALIAN
COUNSELLING
ASSOCIATION
ACA APPROVED COURSE
DIPLOMA OF COUNSELLING

+61) 2 9622 1047, +61) 402 140 905
www.accu.edu.au, info@accu.edu.au

캠퍼스 시드니/캔버라
멜번/브리즈번



CRICOS

ACC 협력 기관



소중한 당신을 위한
호주 한인 생명의전화

24시 무료상담 +61) 2 9858 5900
info@koreanlifeline.org, www.koreanlifeline.org



원앤원(One&One)
심리상담연구소

+61) 2 9622 1047, +61) 402 140 905
info@accu.edu.au



Charis College
Ministry

+61) 402 140 905
ccm@accu.edu.au



가계 재정부담 완화와 함께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집중 투자하는 부문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이다.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주요 자원, 태양광 개발에 상당한 자금을 배정한 것이다. 사진 : Federal Government



지난 5월 14일(화), 노동당 정부의 세 번째 예산계획 공개를 앞두고 한 미디어를 통해 개요를 설명하는 짐 찰머스(Jim Chalmers, 사진) 재무장관. 사진 : ABC 방송 뉴스화면 캡처

▶4면에서 이어받음

이를 위한 ‘Future Made in Australia Act’ 에 따라 법으로 제정된 이 프레임워크는 향후 민간 부문 투자를 안내하고 탄소배출 순 제로(net-zero) 달성에 기여하거나 공급망에 맞서 호주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 Rental assistance= 연방 임대료 지원(Commonwealth Rent Assistance)을 통해 제공되는 최대 비용 효율이 올해 9월부터 10% 인상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이미 최대 효율을 받고 있는 약 100만 명의 수혜자가 새로운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임대료 지원을 받은 1인 대상의 최대 지급액은 2주당(a fortnight) 188.20달러이며 쉐어하우스(share house) 거주자 1인에게는 2주에 125.47달러가 지원된다. 이는 연동(indexation) 전, 한 사람에게 2주당 약 19달러가 추가된다는 의미이다.

▲ Housing= 정부는 가정 폭력을 피하고자 집을 나온 여성 및 아동, 청소년을

위한 임시 수용시설에 10억 달러의 국가 주택인프라시설(National Housing Infrastructure Facility)을 제공키로 했다. 이 자금은 지방정부가 사회주택 및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신규 주택을 위한 도로, 하수도, 에너지 및 상수도 연결 비용을 위해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에 추가로 10억 달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와 5년 계약을 통해 노숙자 서비스에 제공하는 자금을 두 배로 늘렸다.

▲ Healthcare= 연방 정부는 새 회계연도 예산으로 보건 분야에 85억 달러의 새로운 자금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개설된 58개 긴급 진료소에 이어 추가로 29개 긴급 진료소에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메디케어(Medicare)로 전액 보장되며, 일주일 내내 워크인 진료(walk-in care)를 제공한다. 이 시설은 응급실에 가야 했던 여러 질병을 포함해 간단한 질병에 대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또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독신자 가족, 노인 및 연금 수급자에 대한 메디케어 추가 부담금 저소득 기준치를 2년 연속 인상했다. 이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 기준액(연소득)은 2만6,000달러까지, 가족 기준액은 4만3,864달러로 인상됐다. 또 독신 노인과 연금 수급자의 경우 한도는 \$41,089로, 가족 한도는 \$57,198로 인상된다. 가족 소득 한도는 이제 각 부양 자녀당 \$3,760에서 \$4,027로 높아진다.

▲ Medication= 의약품 보조 혜택인 PBS 목록에 등재된 의약품 비용은 새 회계연도부터 정부가 약속한 주요 생활비 부담 완화 조치 중 하나로, 메디케어 카드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 2년 동안, 할인카드(concession card)와 고령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5년간 동결된다. 이는 31.60달러 가격의 의약품이 할인카드 소지자나 고령연금 수급자에게는 7.70달러로 유지됨을 의미한다.

▲ Family violence supports=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Leaving Violence Program’을 영구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거의 10억 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다. 이는 폭력이나 학대를 가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려는 이들에게 최대 5,000달러의 재정 지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및 안전 계획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 Teaching, Nursing, Social work students= 교육, 간호, 조산(midwifery) 및 사회복지 과정에 대한 실습을 수행하는 학생들은 이제 실습 비용으로 주당(a week) 319.50달러를 받게 된다. 이는 학업 과정의 일부로 실습을 수행해야 하지만 해당 기간 동안 수입 활동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의 경제성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Commonwealth

Prac Payment’는 자산 조사를 하게 되며, 이미 받고 있는 기타 소득지원에 더해 지급되며, 이로써 내년부터 약 6만8,000명의 고등교육 학생, 5,000명 이상의 VET 과정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된다.

▲ Taxpayers= 7월 1일부터 모든 납세자는 올해 초 연방정부가 발표한 세금 변경사항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모든 납세 계층에 속한 근로자가 소득세를 덜 납부한다는 의미이다.

정부가 내놓은 3단계 세금 감면은 이전 정부(자유-국민당 연립)에서 이미 올해 7월 발효로 입법화되었던 것으로, 노동당 정부는 이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자 이 약속을 깨고 올해 초 변경을 발표했다. 간단하게,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정부의 이 변경은 과세소득 14만6,000달러(연간) 미만의 근로자는 입법된 것보다 더 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고, 이 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이들에게는 더 적은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또 19%의 세율을 16%로, 32.5% 세율을 30%로 낮추고, 37% 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액을 연간 12만 달러에서 13만 5,000달러로 높이며, 18만 달러에서 19만 달러 소득자에게는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 Parental leave takers= 내년 7월 1일부터 유급 육아휴직자에게 퇴직연금이 추가로 적립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비용은 4년에 걸쳐 11억 달러로 예상되며, 매년 6억2,310만 달러가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더 많이 사용하는 남성과 여성간 소득 불평등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해당 기간 동안 퇴직연금이 손실되면 은퇴시 평균 저축액이 줄어들게 마련이다.

▲ Student debts= HELP를 비롯해 모든 학자금 대출(VET student loans, Australian Apprenticeship Support Loans, 기타)을 안고 있는 이들은 연방정부가 대출 이자를 발생시키는 연동(indexation)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더 적은 부채를 감당하게 된다. 이 변경안은 의회를 통과해야 하며, 그럴 경우 학자금 대출(HECS Debts) 연동은 소비자 물가지수 또는 임금물가 지수 중 더 낮은 비율로 계산된다. 또한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6월로 소급 적용된다. 이는 해당연도(지난해) 측정된 인플레이션 7.1%에 비해 훨씬 낮은 임금물가 지수 3.2%가 적용됨을 의미한다.

▲ Tradies= 사업자를 위한 세금감면 혜택이 1년 연장됐다. 자산 상각(asset write-off)으로, 연 매출액이 1,000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은 최대 2만 달러 상당의 새 장비에 대해 세금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안은 현 회계연도에 대한 지난해 예산에서 연장되었지만 한도를 3만 달러로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로 의회에서 계류된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호주 중소기업협의회(Council of Small Business Australia)는 정부에 한도를 15만 달러로 늘릴 것을 촉구해 왔다.

정부는 또한 주택 및 건설 관련 프로그램을 공부하려는 2만 명의 추가 교육비용을 충당하고자 추가로 9,000만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개편된 ‘New Energy Apprentice Payment’에 따라 청정에너지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학습 과정 동안 최대 1만 달러가 지급된다.

▶28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새 회계연도 예산계획에서 보육비 부문은 큰 변동이 없다. 사진: Nine Network 뉴스화면 캡처

▶29면에서 이어받음

■ Losers

▲ **Would-be migrants**= 정부는 새 회계연도 영주 이주 프로그램 한도를 18만5,000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며, 이 중 13만2,000명을 기술 부문 인력에 할당, 호주가 원하는 기술을 가진 인력에게 영주 비자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순 해외이주는 2024-25년, 지난해의 절반인 2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외 유학생 유입도 제한되어 있으며, 이의 세부 사항은 대학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새 회계연도부터 수요가 많은 중국, 베트남, 인도에서 오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위한 사전 신청과 25달러의 수수료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비자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원활한 수요 관리를 위해서이다.

이와 별도로 3,000명의 인도 출신 고등교육 졸업생과 초기 경력 상

태의 전문 기술인력이 최대 2년간 호주에 거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될 전망이다.

▲ **International students**= 정부가 도입한 새 규정에 따라 유학생 수는 제한된다. 교육부 장관은 매년 각 교육기관에 신규 유학생 등록 최대 수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이 이 한도를 초과하여 국제학생 등록을 원하는 경우, 국내 및 국제학생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목적의 학생 숙소를 만들어야 한다. 학생 모집에 대한 세부 사항은 정부 해당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High-income earners**= 현 정부의 3단계 세금감면으로 고소득자들 또한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Loser'에 구분된 것은 그 '감면' 폭이 본래 계획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이미 입법화된 3단계 세금감면에

대한 현 정부의 개편으로 연간 14만6,000달러 이상의 과세소득을 거두는 이들은 이전 감면계획에 비해 더 적은 금액을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고소득자들은 7월 1일부터 소득세를 4,529달러 덜 내게 된다. 하지만 애초 계획에서는 세금 감면액이 9,075달러로 예상됐었다.

▲ **NDIS**= 국가장애보험제도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는 정부 지출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증가, 예산 압박을 가하는 항목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미 NDIS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에서 그 방안을 제시했었다. 정부는 이 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향후 4년 동안 NDIS 참가자 지급액이 144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의 핵심은 정부가 이른바 '계획 내 인플레이션' (intra-plan inflation)을 억제하려 시도하면서 사람들이 모든 자금을 사용할 때 이 제도의 자동 추가를 종료하는 것이다.

▲ **Universities**= 대학 또한 'Loser'로 분류된다. 일부 3차 산업 기술 부문에는 상당한 혜택이 있는 반면 현재 대학들이 처한 문제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미 대학 단체들이 국제학생 정원을 제한하려는 정부 계획에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정부는 고등교육기관들이 한도 이상으로 유학생을 수용하려 하는 경우 목적에 맞는 학생 숙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예산계획에는 또한 대학이

내년도부터 학생이 지불하는 학생 서비스 및 편의시설 요금의 40%를 학생 주도 조직에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사항도 명시되어 있다. 다만 최종 협회가 진행되는 동안 2026년부터 해당 부문에 대한 더 많은 자금 지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 No chance

▲ **Child care**= 지난해 예산에서 현실이 된 보육 보조금 프로그램 지불 및 정확성을 목표로 한 개혁을 통해 4년 동안 4억1,07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유아교육 및 보육 부문 임금인상을 위한 자금 제공을 위해 2년에 걸쳐 이 절감액 중 3,000만 달러를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규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기타 조치들도 예산계획에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해당 부문 제공 업체에 대한 감사를 확대하고 가족 보육 시설에서 보육 격차비용 징수를 관리하기 위해 4년에 걸쳐 8,42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홈케어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유아교육 및 보육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은 전반적으로 큰 변동이 없다.

▶새 회계연도 Winner와 Loser의 보다 상세한 분야는 한국신문 온라인 (www.koreanherald.com.au)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다이아몬드, 진주 도매업체

J.won Jewellery

제이원 보석

www.jwondiamond.com.au

9763 1355 스트라스필드 플라자 1층 8호
(플라자안 우체국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Open Hour Mon-Fri 10pm~6pm
Sat 10am~3pm

▶3면에서 이어받음

올 3월까지 인플레이션이 3.6%에 달하는 등 여전히 목표치(2~3%)에 도달하지 못한 가운데 정부는 올 크리스마스 이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headline inflation,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을 3% 이하로 낮춤으로써 공식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의약품 혜택 제도(Pharmaceutical Benefit Scheme, PBS)에 등재된 의약품은 2년 동안 최대 31.30달러의 비용으로 제한된다. 연금 수혜자, 할인 카드 소지자의 경우 5년 동안 의약품당 7.70달러 이하를 지불하게 된다.

정부는 추정 요율(deeming rate)을 1년 동안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를 인상한다면 소득 지원 수혜자 87만6,000명(이 가운데 약 절반 이상이 고령연금 수혜자이다)의 복지 지불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또한 생활비 측정 수단으로 더 높은 Jobseeker 비율에 대한 자격 확대를 홍보해 왔지만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이 조치는 일할 능력이 제한된 4,700명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Future Made in Australia' 계획

최근 노동당 정부가 내놓은 중점 정책인 'Future Made in Australia'는 지역 건설을 촉진하고 2050년까지 호주 경제를 'net-zero'로 전환한다는, 사실은 불명확한 시도였지만 점차 향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찰머스 장관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net-zero 투자를 유치, 활성화하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227억 달러가 지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 예산안은 배터리 및 청정 에너지 기술

에 필요한 광물을 가공할 뿐 아니라 정제하는 주요 광물 생산업체에 대한 미래의 새로운 세금 인센티브를 예고한다. 계획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며, 시행까지는 몇 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 기구인 'Geoscience Australia'는 또한 예비 광산인력 장려 차원에서 국가 회토류 및 중요 광물 매장지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10년에 걸쳐 5억 달러를 배정받는다. 새 회계연도 예산계획에는 또한 호주의 새 수소 산업을 위한 세금 인센티브와 1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이 계획되어 있다.

■ 새 예산안 기본 사항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100억 달러의 순익 개선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평가에서의 '2023-24년도 적자 전망'은 현재 '93억 달러의 흑자'로 예상된다. 찰머스 장관은 "하지만 이후 예산 압박이 완화되기는커녕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예산 흑자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높은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수십억 달러의 순익이 추가됐다. 낮은 실업률로 인해 정부는 개인 소득세 수입을 늘렸으며 복지에 지불하는 비용을 낮추었다.

이번 회계연도(2023-24년)의 흑자는 지난 10년간 정부 예산 가운데 마지막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몇 년 간 적자폭은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적자는 내년도 283억 달러, 내후년에는 428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재무장관은 단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의 96%를 예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순부채는 올해 초 전망보다 소폭 증가해 5,00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고 내년에는 5,520억 달러로 증가해 2025-26년에는

총부채가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해외 근로자 유입 '제한'

이민과 이것이 주택공급 및 구입 경제성이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은 팬데믹 사태 이후 기록적인 이주 이후 집권당에 상당한 정치적 고통을 안겼다. 새 예산계획에서는 지난해 52만8,000명에 달했던 순해외이주자 유입이 올해에는 39만5,000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25만5,000명에서 23만5,000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정부는 영주 이주를 연간 18만5,000명으로 제한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13만2,000명은 기술 부문 인력에 할당한다. 정부는 또한 유학생 입국에 대한 상한선을 제안하고 있지만, 그 수치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예산계획에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보수적 추정이 포함되어 있다. 석탄 및 철광석 가격은 지금부터 내년 3월 사이, 절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원자재 수요 상승은, 철광석 가격이 톤(tonne) 당 10달러씩 증가할 때마다 예산에 추가로 5억 달러가 추가되는, 기대하지 않았던 예산 횡재를 발생시켜 왔었다.

지난 예산기간 동안 노동당 정부는 예고되지 않았던 지출로 66억7,000만 달러를 투입했다.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은 향후 10년 동안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연간 지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이자 지급이 매년 9.9%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장애보험제도인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NDIS)는 두 번째로 빠르게 늘어나는 지출 부문이다. 향후 매년 9.2%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치 10.1%보다는 다소 낮아진 수치이다. 12



2024-25년 예산안 발표를 위해 재무부 청사를 나오는 짐 찰머스(Jim Chalmers, 왼쪽) 재무장관과 케이트 갤러허(Katy Gallagher, 오른쪽) 재정장관. 내년도 예산계획은 인플레이션 수치를 낮추는 데 주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사진: ABC 방송



올해의 경우 예상하지 않았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정부 세금수익이 크게 증가했지만 내년도 이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재무부가 준비한 예산계획안. 사진: ABC 방송

월 이후 재무부는 NDIS 관련 지출이 추가로 1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부는 이 비용의 대부분을 상쇄할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 병원, 의료 혜택 및 노인요양 부문은 부채에 대한 이자 및 NDIS에 이어 빠르게 증가하는 정부의 4대 지출이다.

■ 중고기기업 세금 감면-학자금 부채 탕감

연방정부의 '2만 달러 즉시 자산 상각' (asset write-off,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만 달러 미만의 적격 자산 전체 비용에 대해 즉시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은 앞으로 1년 더 이어지게 된다.

워킹 홀리데이 수요가 많은 중국, 베트남, 인도 젊은이들에게는 효율적 비자 처리를 위해 사전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며 첫 신청에는 25달러가 부과된다. 아울러 스노위 수력발전(Snowy Hydro)에는 4년에 걸쳐 45억 달러, 2년에 걸쳐 26억 달러의 건설 대출이 제공된다.

또한 이민 결정과 관련된 법원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항소재판소를 대체하는 행정검토 재판소에 5년에 걸쳐 10억 달러를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18개월 전, 정부가 심리학자에 대한 정신건강 부문 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인 이후 노동당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해 향후 8년간 5억8,500만 달러를 지출하기로 했다.

학자금 부채(HECS Debts)에 대해 정부는 이달 첫 주, 연동(indexation) 방식 개편을 통해 이를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런 한편 더 많은 건설 부문 숙련기술 인력이 없이는 120만 채의 주택 공급 공약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건설인력 양성을 위해 TAFE 및 VET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12면에서 이어받음

이 과정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약 2주가 소요되는데, 실 박사는 “이 기간에 백신을 접종받는 이들은 여전히 인플루엔자에 감염되기 쉽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독감 백신이 효과가 없다거나 예방접종을 받은 해에 최악의 독감을 겪었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Australian Immunization Register 데이터를 보면, 지난 4월 28일 호주 인구 10명 중 1명만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상태이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획기적 변화' 전망

올해 인플루엔자 시즌의 시작은 이에 대한 '매년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바꿀 수 있는 획기적 발견과 일치한다. 현재는, 해마다

새로운 종류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바이러스로 인한 위협에 맞춰 새로운 백신이 출시되어야 하므로, 매년 독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또한 연령과 건강 상태가 다른 이들에게는 다양한 백신이 제공된다.

지난달 말, 멜번 기반의 유명 감염병 연구소 'Peter Doherty Institute for Infection and Immunity' 연구원들은 모든 역사적 바이러스 변이에 존재했던 9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조각을 발견했다.

이 9개의 단편은 인플루엔자와 맞서는 데 있어 중요한 체내 세포독성 T세포의 일종인 킬러 T세포를 활성화하는 핵심이다.

동 연구소 측은 이 발견을 계기로 보편적인 인플루엔자 백신을 개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COVID-19로 인해 인플루엔자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현재 5세기량의 어린이는 자연적 면역력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독감 백신을 접종받을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사진 : Duke Health



NSW대학교 보건학과 부교수인 홀리 실(Holly Seale, 사진) 박사. 그녀는 백신에 대한 신뢰를 갖고 접종을 받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진 : NSW 대학교

한국신문
THE KOREAN HERALD
Korean Community's & Best Quality Newspaper

“한국신문은 호주한인사회의 밝은 등불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장 이윤신 Peter Lee
- 편집인 김인구
- 편집국장 김지환 Kevin Kim
- 디자인 Emily Cha
- 관리 이선옥

카카오톡 : Koreanherald
페이스북 : 한국신문

T. (02) 9789 3300
E. herald@koreanherald.com.au
W. www.koreanherald.com.au
A. 105/118 Great North Rd
Five Dock NSW 2046

저작권자(©)한국신문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한인직영, 한인전용 한솔장례식장

“장례 기간중 입관식, 장례식, 빈소운영, 조문객 접대등 모든 절차를 준비된 한곳의 장소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예식장 - 장례식, 입관식 & 추모식 진행 - 70명 + 수용 규모
2. 빈소 - 장례 기간중 조문을 받을 수 있는 한인 전통식 공간
3. 조문객 접대실 - 장례 기간중 방문하신 조문객 접대 - 80명 동시 수용 규모

4. 부엌 - 조문객 접대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넓은 공간
5. 유가족 휴게실 - 빈소 운영중 필요에 따라 유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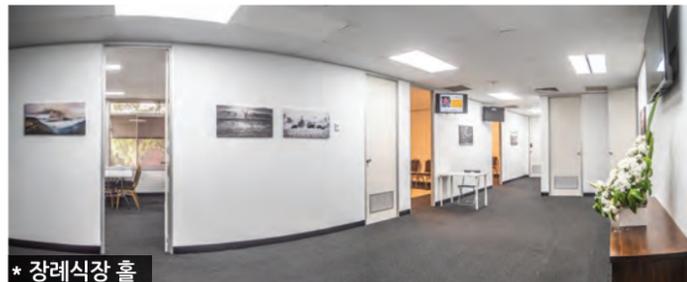
* 빈소



* 장례식/추도식/입관식을 진행할 수 있는 예식장 (70명 수용)



* 조문객 접대실 X 2 * 유가족 휴게실



* 장례식장 홀



한솔장례 Hansol Funeral Services P/L

문의: 02 9858 5547 / 0404 116 758 (주 7일 / 24시간)
주소: 12 Pike St. Rydalmere NSW 2116
info@hansolfs.com.au / www.hansolfs.com.au



호주 약국 최다 판매 NO.1 폴리코사놀

*출처:IRI Pharmacy MarketEdge data, MAT to 3/11/2019

Australia's
NO.1*
Policosanol
brand



- ✓ 콜레스테롤 수치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
- ✓ 혈중 지질 수치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



쿠바산
폴리코사놀
독점원료

김명민

레이델 전속모델
배우 김명민



MD
추천

레이델 아벡솔



경증 골관절염(OA) 경미한 관절 통증, 뻣뻣함, 관절 운동 장애와 같은 증상이 특징입니다. 경미한 골관절염을 관리하고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레이델 아벡솔은 6가지 고분자량 알코올의 혼합물인 비즈왁스알코올들 50mg을 함유하고 있으며, 경미한 골관절염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건강을 유지합니다. 항산화 효과가 있으며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유지합니다.

Always read the label. Follow the directions for use. If symptoms persist, talk your health professional.